



코스피 2230.98 (-7.90)	코스닥 679.16 (+0.45)
금리 (미국 3년) 1.39 (+0.01)	환율 (원/달러) 1157.00 (+0.90) (15일)



[금융]
BNK금융그룹
飛上 2020 전략
05

지구촌은 지금 '프라이버시 보호' 총력

시시대 역기능 막아라 첨단 정보보호 잇따라

GAFGA, 프라이버시 보호 강조
AI 제품에 정보 보호기능 강화

구글, 어시스턴트 기록삭제 명령
아마존, 음성 지시로 녹음 삭제
페이스북, '공개범위 확인' 추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주도하는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GAFG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가 'CES 2020'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고, AI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속속 탑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재점화됐으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하부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GAFGA 프라이버시 보호 어디까지

지난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GAFGA의 가장 큰 이슈는 프라이버시 강화였다. 이 이슈가 애플을 28년 만에 CES에 참석하도록 이끌었다. 애플, 페이스북 등의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들은 원탁회의에서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 GAFGA는 최근 강화된 프라이버시 기능도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에 '프라이버시 디자인'을 채택했다. 사용자가 "헤이 구글, 이번 주에 말한 모든 내용을 삭제해 줘"라고 명령하면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아마존도 음성 지시로 녹음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아마존의 보안회사인 링이 홈보안 카메라로 녹화된 동영상 데이터를 경찰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문제가 되면서, 이번에 데이터가 경찰에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이 달 '내가 공유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 기능을 추가해 자신의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을 볼 수 있는 '공개 범위 확인' 기능을 도입했다. 내 정보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친구 요청이 가능한 이용자도 설정할 수 있다.

애플은 이모지(이모티콘) 데이터 세트를 익명화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이모지가 나타나도 데이터를 알 수 없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기능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연례개발자회의에서는 로그인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애플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소개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로그인할 때 이름, 성별 등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과 비교해 차이를 강조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라이버시가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2018년과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구글플러스의 5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의혹, 지난해 애플 계약업체 직원들이 아이폰 사용자와 AI 음성비서 '시리'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에도 아마존 직원들이 고객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유출했다가 해고됐다.

◆데이터 3법 통과...정부도 빠른 후속 조치 내놔야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명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연구·사업에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명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명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로 정의했지만, 이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다.

지난해 8월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이 발표한 논문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로도 특정 개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몽주이 교수 등이 미국, 터키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내는 재식별화 모델을 만들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에린 이건 페이스북 CFO(왼쪽 2번째), 제인 호바스 애플 선임이사(가운데) 등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들이 CES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CNET



이용우 제네시스 사업부 부사장이 15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최첨단 기술 집합... 제네시스 첫 SUV 출격

현대차 'GV80' 공식 출시 3.0 디젤, 6580만원 부터

제네시스 브랜드가 첫 번째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GV80'을 공식 출시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GV80은 제네시스가 처음 선보이는 후륜구동 기반의 대형 SUV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4년여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럭셔리 감성,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바탕으로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대형 럭셔리 SUV를 목표로 GV80을 개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원희 사장은 "제네시스는 오늘 출시하는 GV80에 기존 SUV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 및 편의 사양들을 담아 고객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고객의 니즈에만 집중해 제네시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 품질, 서비스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GV80은 후륜구동 기반의 대형 SUV에 걸맞은 최고의 동력 성능과 주행 성능을 갖췄다.

GV80은 직렬 6기통 3.0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78마력(PS), 최대토크 60.0kgf·m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11.8km/L이다. 또한 11가지 다양한 외장 컬러와 5가지의 내장 컬러 패키지로 운영된다.

특히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 전방 노면 정보를 사전에 인지, 적합한 서스펜션 제어로 탑승객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최초 적용됐다.

GV80의 디자인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완벽하게 담아낸 외관과 대형 SUV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편안하고 깔끔한 내부, 다양하고 매혹적인 컬러 등으로 고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 인체 공학적 시트 시스템인 에르고 모션 시트 등으로 안락한 실내 공간과 고속도로 주행보조 II(HDA II), 10 에어백 등 뛰어난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필기인식 조작계) 등의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편의 사양으로 혁신적인 상품성을 갖췄다.

제네시스는 GV80을 3.0 디젤 모델부터 출시하고, 추후 가솔린 2.5/3.5터보 모델을 더해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0 디젤 모델의 판매가격은 6580만원부터 시작된다. /양성운 기자 ysw@

바이오의약 넘어 식품·에너지까지 육성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홍남기 혁신성장전략회의 바이오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5대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선정

정부가 고성장이 예고됐는데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기존 레드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 산업도 육성한다.

바이오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로 분류되는데 레드바이오는 바이오의약과 헬스케어, 그린바이오는 맞춤형 혁신식품, 생명자원, 식물공장 등을, 화이트바이오는 바이오연료, 바이오리파이너리,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각각 말한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TF를 통해 지난 2개월여간 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집중 논의한 결과, 혁신 범위를 레드(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그린(식품·자원)·화이트(환경·에너지) 바이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바이오 정책이 보건·의료 등 레드바이오 분야에 집중돼 있어 그린·화

이트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산업육성 전략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레드 39.7%, 그린 15.9%, 화이트 4.2%, 기초기반 40.2% 등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R&D 혁신, 인재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량이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화이트 바이오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실증연구 확대를 검토한다.

한국형 NIBRT를 설립해 생산·품질 관리 등 바이오산업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NIBRT는 아일랜드의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인력양성기관(NIBRT)으로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등 공정 전 과정의 생산·개발 인력 교육기관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고용 V자 반등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재정·일자리·청년알바만 증가... 40대·제조업은 '한파'

홍남기 부총리 고용동향 브리핑

“작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성과 생산인구 감소속 이뤄내 뜻깊어 퇴직·구직자 종합대책 3월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작년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0대와 제조업에서의 고용한파,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수가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인점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정부 고용정책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날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연합뉴스

30만1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다. 실업자는 1만명 줄었다.

홍 부총리는 “작년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한,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고용지표 반전은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작년 취업자가 12만8000명 감소해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나타낸 40대와 관련해서는 “퇴직·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등 40대 전직 역량 강화 ▲창업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고용환경의 도전요소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아울러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산업 구조 변화,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도 당면한 어려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취업자 증가폭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을 대비하겠다”며 “서비스와 신산업으로 풀고구를 찾는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40대·제조업 ‘직격탄’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40대와 제조업의 일자리는 ‘한파’에 가까웠다라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16만2000명 감소했는데, 지난 1991년(-26만6000명)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률로도 40대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 40대의 고용률은 78.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하락

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다. 2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40대가 많이 포진한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1개월째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역대 최고 고용률 이면에는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기간 주당 17시간 초단기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만1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인 30만1000명과 같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청년의 아르바이트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산업별로 보더라도 노인 일자리가 속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명,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6만1000명으로 취업자 증가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재정 일자리의 최대 수혜자인 60세 이상의 취업자수는 37만7000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고용률 상승폭도 1.4%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연합뉴스



영하권 추위에 한강 ‘꽁꽁’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변에 물이 얼어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52만명 늘어 증가폭 5년만에 최대

작년 12월 취업자수 2715만명
연간 30만명대... 2018년의 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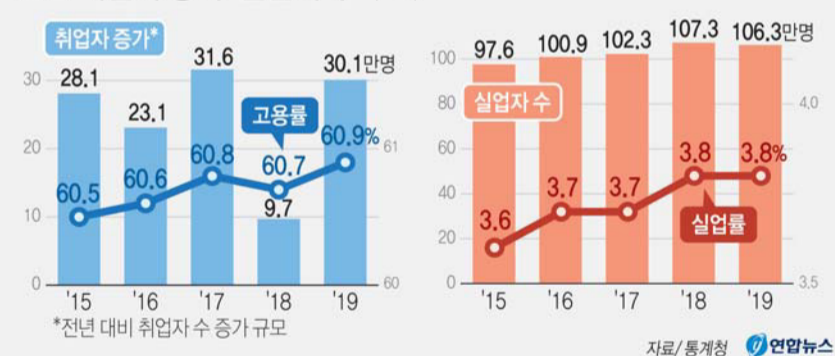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폭이 50만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2018년 증가폭(9만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연간 목표였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실업자 수 추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과 4월을 빼고 매달 20만명을 웃돌았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고 12월에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

준인 15~64세 작년 고용률은 66.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9년 집계 이후 최고다.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2016년 이래 4년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2018년(107만3000명)을 빼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로 가장 많다. /석대성 기자

하나은행, DLF 손해배상률 최대 65%

배상위원회 열고 자율조정 배상 돌입

KEB하나은행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안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실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손님과 합의의 통

해 즉시 배상기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금융관련 학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홍민영 기자 hong93@

삼성전자, 14년째 美 특허취득 2위

LG전자는 6위... IBM, 9262건 1위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취득 건수로 14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LG전자도 6위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15일 미국 특허정보 업체 IFI 클레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특허를 6471건 등록했다. 전체 33만 3530건 중 1.9%에 해당한다.

2006년 이후 14년째 2위다. 27년째 1

위인 IBM(9262건)에 적지 않게 뒤처지긴 했지만, 3위인 캐논(3548건)보다 2배 가까운 차이를 유지하며 높은 순위를 이었다. 유효 특허건수는 삼성전자가 7만6638건으로 1위였다. 특허건은 2개 이상 국가에 특허가 등록된 경우로, 특허 등록 건수 1위인 IBM은 특허건으로는 3만7304건으로 2위에 머물렀다.

LG전자도 2805건 특허를 취득하며 전체 6위에 올랐다. /김재웅 기자 juk@

미국 내 특허 취득 건수 상위 10개 기업



또 라임운용, 환매중단... 판매사 몰래 돌려막아 피해 키워

부실펀드에 펀드별 최대 30% 투자
4월 만기 앞두고 환매 중단 가능성

신한은행 편입 자산 회수방안 검토
“라임이 임의대로 문제 펀드 재투자”
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새의혹 확인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환매중단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미국 폰지사기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펀드에서도 몰래 자금을 빼내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별로 다르지만 자산의 최소 7%에서 최대 30%까지 부실펀드에 투자했다.

문제는 숨겨진 부실 펀드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다. 판매사들은 정기적으로 운용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라임이 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통보할 때까지 부실 자산에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이 추가로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힌 펀드는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무역금융 펀드(이하 CI펀드)’다. 판매사는 신한은행과 경남은행 등이다. 판매규모는 신한은행이 2700억원, 경남은행이 100억원 안팎이다.

당초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TF-1호’와 ‘테티스2호’, ‘플루토FID-1호’ 등 3개다.

CI펀드는 플루토TF-1호와 같이 무역금융펀드지만 정상 운용 상품으로 분류돼 왔다.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면서 신용보험까지 들어있어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낮았다. 연 3~4%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라 중위험 중수의 상품으로 꼽히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오는 4월 만기를 앞두고 환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라임이 판매사들도 모르게 CI펀드의 정상 채권을 팔아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플루토FID-1호’ 펀드에 다시 투자하면서다. ‘돌려막기’의 전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운용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운용사로부터 분기나 매달 정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라임 처럼 의도적으로 속일 경우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 자산 편입 비중은 펀드별로 7~30%로 파악됐다. 일단 신한은행 측은 문제가 없는 자산은 만기에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CI펀드와 같이 문제가 된 부실펀드에 투자한 상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의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라임에 대한 감독당국의 추가 검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에 대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사 이후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정상펀드의 ‘돌려막기’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검사에서 봤던 부분 외에 불완전판매나 다른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는 물론 판매사에 대한 책임부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동빈의 공감·공생경영... 게임체인저 주문

(롯데그룹 회장)

롯데 새해 첫 사장단 회의

시장 급변 속 핵심 경쟁력 강화
유연한 기업문화 등 당부 전망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사장단들을 새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혁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15일 오후 2시 신동빈 회장 주재로 2020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 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향후 경영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과 BU·지주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장단들은 올해 경제 전망은 물론 지난해 그룹사 성과 리뷰와 중기 계획, 그룹 주요 이슈 및 전략 등을 공유한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계열사 DT 추진 실무 임원들이 함께 모여 롯데 DT 추진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혁신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감(共感)과 공생(共生)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자”며 “오늘날과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잘하는 것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역량은 강화하면서 기존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혁신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달라”며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시장을 리드하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사장단 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핵심 경쟁력 강화와 혁신이 필수기 때문이다.

이번 VCM에서는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롯데 직원들의 실천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 공유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각 계열사 핵심 인력들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을 리드하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을 강조하지 않겠냐”며 “사장단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지난 14일 인도 뉴델리 IFFCO 본사에서 열린 NH농협캐피탈과 IFFCO-키산 파이낸스(Kisan Finance) 간 투자서명식에서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아와스티 IFFCO 회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NH금융, 인도 농업금융 진출

지분투자로 여전사 2대 주주
서남아 지역까지 확대 계획

NH농협금융이 세계 최대 비료협동조합인 인도비료협동조합(IFFCO)과의 조인트벤처(JV) 방식으로 인도 금융 시장에 진출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4일 김광수 회장이 인도 뉴델리 IFFCO 본사를 방문해 농협금융과 IFFCO 양 그룹 산하의 여신전문금융자회사 간 투자서명식을 가졌다가 15일 밝혔다.

NH농협금융의 자회사인 NH농협캐피탈은 IFFCO 산하 트래터 금융 전문회사인 IFFCO-키산 파이낸스(Kisan Finance·이하 키산)의 지분 약 2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한국계 금융회사 가운데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농협캐피탈은 이번 합작을 통해 약 3만6000여개의 농업 관련 협동조합을 회원사로 둔 세계 최대 비료협동조합인 IFFCO의 광범위한 영업채널과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도는 세계 최대 트래터 시장으로 성장률이 연 8%에 달한다. NH농협캐피탈은 우선 키산의 현지 농기계 구매 및 담보대출 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사업영역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NH농협금융은 현재 설립 준비 중인 NH농협은행의 인도 현지 지점과의 계열사 간 시너지 사업 확대와 농업·금융 연계 비즈니스 등을 통해 인도를 넘어 서남아시아지역까지 글로벌 사업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트래터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시장의 견조한 성장 전망, IFFCO 등 경쟁력 있는 주주 네트워크를 고려했을 때 향후 키산의 미래는 밝다”며 “그룹 내에서 인도 금융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NH농협금융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키산의 사업 확대와 성장을 위해 NH농협캐피탈의 임원선임·인력 파견 등 경영협력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H농협금융은 농협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협동조합 또는 농업계 기업과의 협력·합작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도 IFFCO와의 금융 분야 합작을 통해 중국 공소그룹, 미안파투(HTOO)그룹과 더불어 아시아 3개 권역에서 안정적인 영업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안상미 기자

정부, 기본법제 마련 등 ‘AI 국가전략’ 고삐

>> 1면 ‘AI시대 역기능 막아라’서 계속

그 결과 나이, 성별, 결혼여부, 우편번호 등 15개의 인구통계학적 속성만 있으면 99.98%까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

정부는 가명정보를 조작해 재식별할 경우, 기업은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개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가명정보가 식별화될 수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한 유튜브가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살의 여성이라는 내용만 특정했는데도, 네티즌들은 누구인지 쉽게 찾아냈으며, 희귀 질환 영상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기가 더 쉽다”며 “데이터 3법 통과 전에도 데이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문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통과가 꼭 필요해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

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중 시행령, 규칙, 지침, 고시 등을 정비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보보호 기술 개발, 하위 시행령 등 신속히 후속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AI 기본법제 마련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AI 시대의 원칙, 역기능 방지 대책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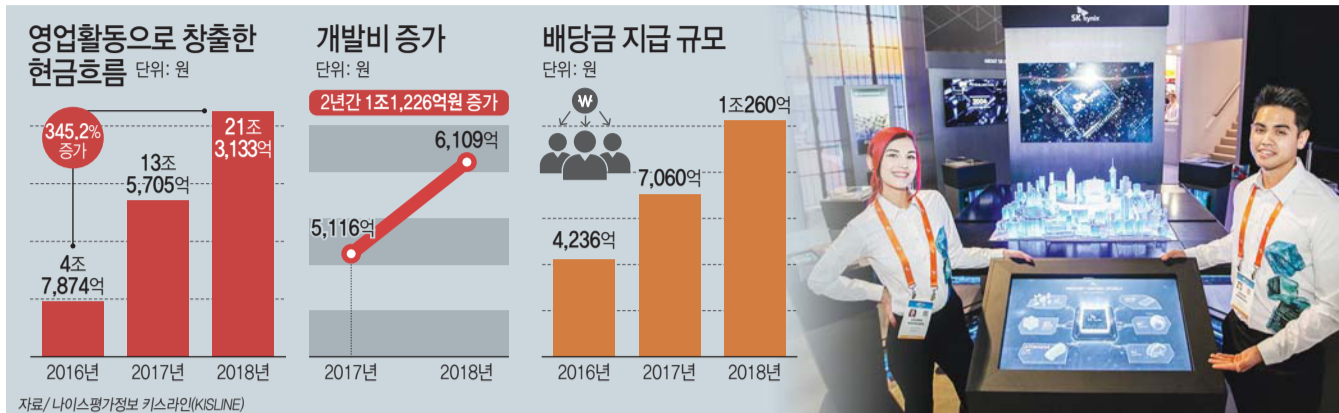
법인세 2년새 17배 5.6兆... R&D도 1兆이상 증가

(2018년)

데이터로 보는 10대 기업

(5) 버는만큼 투자한 SK하이닉스

현금흐름 3년 동안 345% 상승
반도체 설비·공장부지 등 확충
2년간 영업익 6배, 배당률 2배 ↑



다. 2016년 4조7874억원보다 345.2% 늘어난 수준이다.

◆ 버는 만큼 '투자'

SK하이닉스는 부채를 적절히 활용했다. 2018년 총 1조9368억원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했다. 전년(6475억원)보다 부채 상환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졌다.

그렇다고 총 부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비유동부채의 증가로 장기차입금은 2조4021억원 늘어났다. 전년(685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부채를 통

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유·무형자산을 크게 늘리는 등 SK하이닉스는 투자 지출을 늘렸다.

2018년 개발비는 전년에 비해 6109억원 늘어났다. 2017년에도 5116억원을 늘린 바 있다. 2년 간 1조 이상 개발비용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총 개발비는 2015년 1조9892억원에서 2018년 2조9014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만 전년보다 11.60% 많은 2조

3281억원을 투자했다.

기타 유형자산과 리스자산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공장부지 등 유형자산을 늘린 영향이다. 기타 유형자산과 리스자산은 2018년 13조8408억원으로 2016년보다 159.0% 늘었다.

SK하이닉스는 많은 돈을 번 만큼 공간을 안정적으로 채워나갔다. 2018년 말 기준 예금 잔액은 1조7412억원으로 2016년 보다 265.1% 늘었다.

◆ 배당·법인세 급증

SK하이닉스는 주주들의 몫도 가감 없이 늘렸다. 2018년 배당률(배당금/지배주주 지분)은 30.0%로 2016년 12.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배당금 규모는 2016년 4236억원에서 2017년 7060억원, 2018년 1조2260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또 SK하이닉스는 2018년 자사주 취득을 위해 1조7365억원을 사용했다. 적정주가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다.

회사의 몸집이 커지면서 법인세의 부담도 늘었다. 2018년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해당기간 법인세비용은 17배 이상 늘었다. 2018년 SK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는 5조6203억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만 17조원이다"면서 "투톱 반도체의 경제 기여도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업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NHN, KST모빌리티에 50억 투자

(마카롱택시)

간편 결제 '페이코' 도입 등 협력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NHN으로부터 5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KST모빌리티는 총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시제품 개발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 직전까지 받는 투자)를 완료했다.

KST모빌리티는 투자금으로 마카롱택시 사업 인프라 및 서비스 협력 모델 확대, 마케팅 강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NHN과는 간편 결제 '페이코'를 도입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KST모빌리티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플랫폼 가맹 택시 3000대를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운행 대수를 2000대로 늘리고, 택시가맹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과는 전기 택시 브랜드도 만들 계획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어려운 모빌리티 업계 분위기에 시리즈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택시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즐거운 서비스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넷플릭스 목에 방울단 공정위

“요금·멤버십 변경 시 이용자 동의 필수”

공정위 6개 유형 불공정약관 지적 넷플릭스 조사과정에서 자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할 때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고, 넷플릭스의 고이나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토록 한 것은 공정위가 세계 최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사업자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전세계 유



넷플릭스 로고.

료 구독자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국내 이용자는 2016년 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측은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페이스북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구글의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의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기존 약관에서는 회원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만 자동적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이용자는 의사와 관계없이 고스란히 회사 측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회원 계정이 종료·보류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했고, 계정 해킹 등 이용자의 책임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계정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묻도록 손질했다.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아울러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보장된다. 기존에는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는 책임질 수 있도록 수정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건설, 알제리서 '8500억 규모' 공사 수주

1300MW 용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대건설 계동사옥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북아프리카 지역 알제리에서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수주까지 합해 현대건설은 올해 1월에만 약 18억달러(한화 약 2조1000억원)의 수주를 이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4일 알제리 국영 전력청 산하 자회사인 하이엔코에서 발주한 총 7억3000만 달러(한화 약 8500억원) 규모의 '우마세3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계약했다.

발주처인 하이엔코는 지난 2015년 11월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알제리 전력청과 함께 설립한 합작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49%, 알제리 전력청이 51%의 지분을 갖는다.

최근 알제리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소비량 충족을 위해 향후 10년 간 총 2

만MW(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동 전력 수급 정책에 의거해 설립한 합작사 하이엔코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5개 유사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건설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수도 알제리에서 동남쪽으로 340km떨어진 비스크라주 우마세 지역에 약 1300MW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연평균 발전량은 968만MWh규모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올 소비 트렌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인사이드'가 뜬다

신한카드 소비 키워드 제시

신한카드가 올해 국내소비트렌드 키워드로 '인사이드(INSIDE)'를 제시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는 15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타인이 원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2020년 한 해 동안 고객 개인 마음속 깊은 곳(인사이드)의 욕구가 소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귀차니즘 소비(I)'부터 '라이프 큐레이션(N)', '마이데이터 수집가(S)', '팝업 경제(E)', '디지털 힐링(D)', '짧은 취향의 시니어(E)'에 이르는 소비현상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귀차니즘 소비'는 기술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 극강의 편리함, 극강의 시간 효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대행 서비스 및 심부름 서비스, 시간을 절약해주는 밀키트(Meal Kit)·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등에 해당한다.

신한카드가 2018년과 지난해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 고객 및 건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 고객은 6% 증가했으며, 이용 건수는 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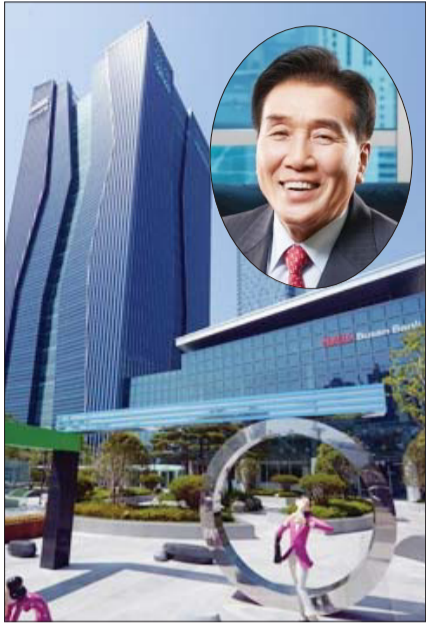
'라이프 큐레이션'은 단순히 취향에 맞는 제품 구매를 뛰어넘어 자신의 생활 전체를 큐레이팅하는 것을 말한다. '맛춤 영양제 정기배송 서비스', '방문 홈트레이닝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홍민영 기자 hong93@

“금융경계 무너질땐 개방협력”... 부·울·경의 혁신생태계

금융, 飛上 2020 전략

(6) BNK금융그룹

기업투자금융, 그룹 핵심수익원 기대
고객중심 영업문화 위해 프로세스 개선
자회사와 투뱅크 체제... 지역사회 상생
기업 지원확대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2023'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기
반 다지기에 나선다.

BNK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순이익은 5292억원이다. 직전연도 같은 기간(5393억원)과 비교해 1.9%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판매관리비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일시적 비용(309억원)이 증가한 영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증가한 실적으로 3대 지방금융 그룹 가운데 1위다.

BNK금융은 앞으로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비

이자수익인 자산관리(WM)와 은행의 기업금융(IB) 부문·증권사의 IB부문을 통합한 기업투자금융(CIB)을 그룹의 핵심 수익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이자이익은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5.6% 감소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54.6% 대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의 이자이익의 실적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은행부문을 살펴보면 그룹 이자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CIB(기업투자금융), WM(자산관리)부문의 비이자수익도 크게 증가했다”며 “금융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기에 소비자와의 높이에 맞춘 혁신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BNK금융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앞서 지난 2일 BNK금융 임직원은 ‘고객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설것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 회장은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을 먼저 생각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

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투뱅크 체제...부울경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BNK금융은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 체제를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꾀한다. 현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3559억원, 1626억원이다.

BNK금융은 계열사별, 사업부문별 협력을 통해 지역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관계형 금융을 이용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BNK만의 포용금융 실천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형 금융은 금융사가 재무 신용 등급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접촉·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비계량적 정보로 지분투자,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강한 BNK금융의 특성을 활용해 혁신·포용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해외진출 선택 아닌 필수...글로벌부문 5% 수익달성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 쌓인 노하우는 해외로 확대한다. BNK금융은 2023년까지 그룹 수익의 5%를 해외 시장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지점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은행은 중국 칭따오와 베트남 호치민에 지점을 보유하고 미얀마, 양곤,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에 지점 개선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BNK캐피탈은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에서 소액대출 및 할부금융업을 운영한다 또 1분기 중에는 중국 난징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BNK캐피탈이 운영하고 있는 4곳의 총 자산은 지난 2018년 말 584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716억원으로 132억원 증가했다. 특히 미얀마와 라오스는 지난 2018년 말 자산이 각각 157억원, 294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306억원, 44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회장은 “해외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글로벌 수익 비중 5%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확장하고 현지에 특화된 금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방문규, 금융지원 독려 등 현장소통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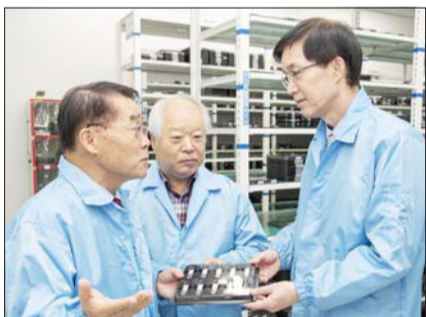
(수출입은행장)

부품 강소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올해 첫 현장소통행보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중소기업을 찾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4일 방행장이 광주에 소재한 유·무선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오이솔루션을 방문해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오이솔루션은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부품인 광트랜시버와 스마트 트랜시버 등을 제조·수출하는 강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업하여 광트랜시버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광소자(레이저 다이오드)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방 행장은 지난해 11월 거래기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박관 오이솔루션 대표이사(왼쪽 첫번째) 박관 오이솔루션 부사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출입은행

업 및 수는 부산지점, 창원지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지원을 독려하는 등 현장소통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은은 올해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18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한화생명, 보험금 지급 여부 인공지능이 판단

3년간 1100만건 데이터 활용 강화학습 통해 지급 룰 생성

한화생명은 보험금지급 여부를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심사하는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AI를 활용한 방식은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핵심기술로 알려진 강화학습을 통해 시스템이 스스로 보험금 지급결정과 관련된 룰을 만들고 지급, 불가, 조사 등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한화생명은 과거 3년간 1100만건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활용, 총 3만 5000번의 학습과정을 통해 처리결과

정합성을 확인해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최대 약 50%까지 AI 자동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자동심사율은 약 25%로 AI 자동심사를 통하면 2배가량 높아진다. 고객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후 수령까지 기일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또 AI 자동심사를 활용하면 저위험 심사 건은 시스템이 처리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의 높일 수 있다. 특히 실손 등 소액보험금 청구 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향후 5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AI보험금지급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실시간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보험사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한화생명은 클라우드를 자사 전산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설계를 추진했다. 이 같은 방식은 서비스의 안정성, 고객 정보보호, 비용 효율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AI 보험금지급 시스템으로 자동심사율이 높아지면 기존 심사 인력들이 난이도가 높은 심사 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고객 입장에서 신속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부산銀, MS와 디지털 플래그십지점 만든다

국내은행-글로벌 ICT기업 첫 협업

BNK부산은행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미래형 디지털 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래그십 지점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플래그십 지점은 국내 은행과 글로벌 ICT 기업간 최초로 이뤄지는 협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산은행이 추구하는 디지털기반 미래 점포의 공간구성 및 활용 노하우를 전달하고 플래그십 지점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디지털 채널 확대를 통해 더욱 발전된 맞춤형 서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디지털 컨시어지에 순번기 기능을 탑재해 업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객장에 터치식 태블릿 모니터를 배치해 ‘셀프뱅킹(Self Banking)’ 업무도 볼 수 있다. 생체인증 기기에 손가락만 갖다 대면 본인 정보가 태블릿으로 자동으로 전송돼 원하는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고객은 화상 상담룸에서 자신의 성향 또는 자산관리, 대출, 연체 등 업무특성을 고려한 신속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내장, 명함 등을 모두 디지털 매체로 제공하는 등 페이퍼리스도 실현된다.

/나유리 기자

NH농협은행

설 연휴 기간 ‘안심서비스’

농협은행은 설 연휴를 맞아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서비스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인근 영업점에 방문해 대여금고 보유 여부와 보호예수 절차 등을 사전 문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전국 194개 영업점에서 대여금고를 운영 중에 있다. 연휴 안심서비스 실시 기간 동안에는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안심미 기자 smahn1@

코리안리 중 상해지점 설립... “중요한 거점될 것”

코리안리재보험은 지난해 12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상해지점 본인가를 획득하고 지점 설립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해지점은 1997년 설립된 북경사무소에 이어 중국 내 두 번째 거점이다. 북경사무소가 현지 시장조사, 분사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면 상해지점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코리안리는 중국 보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상해지점 설립을 검토·추진해왔다.

중국의 보험시장은 전 세계 2위, 아시아 1위로 성장했다. 지난 2018년 중국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92% 성장한 570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보험료의 11.6% 규모다.

이번 상해지점 설립을 통해 코리안리는 지점 4개, 현지법인 3개, 주재사무소 4개 등 총 11개의 해외거점을 보유하게 됐다.

원종규 사장은 “상해지점 설립은 거대한 중국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영업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말귀 ‘착착’ 내부청소 ‘척척’... 무풍의 ‘폭풍 진화’

(에어컨·공기청정기)

삼성 무풍에어컨·공기청정기 공개

미사용팬 냉방세척 등 알아서 청소 전면패널 분리 간편해 세척도 수월

벽걸이에도 무풍냉방·빅스비 탑재 집 근처 오면 IoT기술로 자동 작동 공기청정기 출고가 70만원 부터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이 똑똑하게 돌아왔다. 효율을 더 높이고 청소도 간편케 해 다시 한번 ‘무풍’ 붐을 노린다.

삼성전자는 15일 서울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2020년형 무풍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풍 큐브를 공개했다. 무풍 큐브는 15일, 에어컨은 17일 각각 출시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벽걸이 제품에 있다. 와이드 무풍 냉방을 벽걸이로 확대 적용하면서 패널을 11% 더 넓혔고, 팬 크기도 12% 늘려 더 빠르게 냉각할 수 있게 했다.

인공지능(AI)인 빅스비를 처음 탑재해 음성인식 기능도 쓸 수 있다.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멀리서 음성만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됐다. 제품 버튼도 전원과 모드 2개만 남겨놨다.

제품간 음성 인식 중복 현상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멀티 디바이스 웨이



15일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모델이 2020년형 무풍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풍큐브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시스

크업 기술을 이용해 가장 가까운 기기만 명령을 받게 했기 때문이다.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IoT 기능도 극대화됐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작동패널을 입력하면 개인별로 작동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집 근처에 오면 자동으로 에어컨을 작동하는 식이다. 필터 상태를 진단해 직접 주문까지 해결 수도 있다.

벽걸이를 포함한 제품에는 대기질 측정 기능도 포함됐다.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실내 상태를 확인 가능하다. 벽걸이 제품은 화면을 더 키웠을 뿐 아

니라, 색깔별로 공기질을 표현해주는 오로라 디스플레이도 함께 탑재해 멀리서도 쉽게 상태를 볼 수 있게 했다.

신형 에어컨은 늘 깨끗하게 제품을 사용하려는 소비자 마음도 읽어냈다.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이지케어’를 통해서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 청소 기능을 작동하고, 내부를 차갑게 냉각해 곰팡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냉방 세척도 작동 가능하다.

이지 오픈 패널도 신형 에어컨의 특징이다. 전면 패널을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해 서비스 센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필터뿐 아니라 내부 팬 블레이드까지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기청정 기능도 더 강력해졌다. 필터만으로 99.999% 집진 효율을 구현해냈으며, 수명이 2배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가장 정화하기 어려운 0.3마이크로미터 입자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성능을 자신했다. 일부 필터는 물 세척도 가능케 했다.

냉각 성능은 전작보다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대폭 까다로

워진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1등급을 달성했으며, 모션 인식을 통해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절전모드로 변경해줄 수도 있다.

디자인 역시 지난해 출시한 갤러리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제품 하단부 아트패널을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운 해링본 패턴 등 9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홈 멀티 모델도 확대했다. 실외기 한대에 스탠드형 1대와 벽걸이형을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다. 최근 들어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삼성전자는 멀티 기능을 더욱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청정기 큐브도 마찬가지로 전략이다. 스탠드형 에어컨이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능가하기도 하지만, 방마다 따로 공기청정기를 장착하려는 수요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서큘레이터 급속냉방과 3중 필터시스템, 대용량 미세청정 등 종전 기능 역시 그대로 이어받았다.

가격은 무풍에어컨 갤러리가 출고가 기준 345만~720만원, 벽걸이 와이드는 98만~201만원이다. 무풍 큐브는 70만~210만원으로 책정됐다. 17일부터 ‘2020년 무풍에어컨 런칭 페스티벌’을 통해 최대 30만원을 할인해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T, MS와 초협력... “게임 활성화”

국내 첫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엑스박스(Xbox)개발자 행사를 개최하고, 양사간 ‘초(超)협력’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은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를 후원하고,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사업 제휴 모델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양사간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 협력은 지난해 10월 엑스박스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 시범 서비스에 이어 게임 개발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의 한국 내 독점 사업 운영 파트너인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 전진수 5GX서비스사업본부장(클라우드게임사업 담당 겸임)이 참여해 국내 게임 개발자들에게 게임 분야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엑스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가정용 게임기) 엑스박스의 고화질·대용량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설치 없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양사는 지난 10월부터 SK텔레콤의 5G·LTE 고객 체험단에 엑스클라우드를 시범 서비스 중이다.

전진수 사업담당은 “향후 게임 개발을 위해 양사간 공동 투자를 확대

하고, 게임 개발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는 엑스박스 게임 개발자는 물론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세미나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에서 개최한 첫 엑스박스 개발자 행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독립 비디오 게임 개발자들이 스스로 윈도우와 엑스박스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퍼블리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D@엑스박스’ 프로그램 ▲엑스박스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믹스’ ▲엑스박스 개발과정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엑스박스 게임 콘텐츠 제휴담당인 아그네스 김, 인디 개발자들을 위한 ID@엑스박스를 담당하는 아고스티노 시모네타, 글렌 그레고리 등이 참석했다. 또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와 독립 게임 개발자들 100여명 이상이 참가했다.

SK텔레콤 전진수 클라우드 게임 사업담당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통해 더 많은 한국 게임을 선보일 것이며 ‘엑스박스 디스커버리 데이’가 그 시작”이라며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해 한국 게이머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게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전자, MIT 교수와 ‘미래 로봇’ 만든다

로봇 공학자 김상배 교수와 공동개발 인프라 풍부한 보스턴에 거점 마련

LG전자는 차세대 로봇기술 개발을 위해 메사추세츠공대(MIT) 김상배 교수와 손을 잡았다고 15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06년 도마뱀처럼 벽을 타고 오르는 스티키봇을 발명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최고의 발명품에도 선정됐다. 2012년부터는 MIT 생체모방 로봇연구소를 주도하며 4족 보행 로봇 ‘치타’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와 김상배 교수는 지난해 말 연구과제 선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다. 김 교수가 LG전자 CTO 산하 로봇선행연구소에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MIT 생체모방 로봇연구



2020년 1월 14일 (왼쪽부터)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장 백승민 상무,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MIT 김상배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소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로봇의 손이나 팔을 이용해 물체를 집거나 옮기는 물체조작 기술을 연구해 차세대 로봇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감성인식과 내비게이션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어 4족 보행과 물

체조작 기술 분야의 권위자인 김상배 교수와 협업으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G전자는 미국 보스턴에 ‘LG 보스턴 로보틱스 랩’을 설립한다. 보스턴은 로봇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몰려있어 활발하고 빠르게 기술을 연구하고 로봇 산업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LG전자는 로봇 인프라가 풍부한 보스턴에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로봇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김 교수와 공동 연구를 더욱 긴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김상배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보스턴에 로봇 연구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포스코드림캠프’ 1기 겨울캠프 수료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청암재단은 포항, 광양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포스코드림캠프 1기 ‘겨울캠프’ 일정을 마무리하고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수료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참가 중학생과 대학생 멘토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욱 포

스코청암재단 이사장, 포항교육지원청의 남홍식 교육장과 전우선 장학사, 광양교육지원청의 오수진 장학사, 광양제철중학교 김형기 교장이 자리를 함께해 수료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포스코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실천 일환으로 작년 8월 처음 시작한 포스코드림캠프는 방학기간 중 포항, 광양지역의 중학생

에게 영어와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고 멘토인 대학생에게는 일자리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선욱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코드림캠프가 이제 첫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연륜을 쌓아가면서 이번 캠프에서 도움을 받은 중학생들이 대학생이 돼 배움의 강사로 다시 참여하는 ‘나눔의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희망영웅을 찾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숨은 영웅들을
신한이 응원합니다

[희망영웅 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운
영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ope. Together.



‘S펜 탑재·3200만 화소’... 장점은 유지하고 가격은 다운

갤럭시노트 10 라이트 써보니

카메라 성능 노트10과 큰 차이 없어
노트10보다 큰 화면·배터리 매력
70만원대로 유럽·동남아 등 출시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노트10’의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노트10 라이트’로 유럽과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0’에서 노트10 라이트를 전시하며 소비자에게 처음 선보였다. 노트10 라이트는 보급형 모델로 노트10의 큰 특징은 유지한 채 가격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CES 전시장에서 본 노트10 라이트는 외형만 보면 노트10과 차이점이 많았다. 노트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인 ‘S펜’을 탑재했다는 것만 같다고 느꼈다.

우선 전면 스크린을 보면 노트10은 화면의 양 옆이 휘어지는 엣지 디스플레이인 반면 노트10 라이트 모델은 평평한 플랫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화



갤럭시노트10(왼쪽)은 엣지 디스플레이인 반면 갤럭시노트10 라이트는 플랫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두 제품 모두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면 크기는 라이트가 6.7인치로 노트10(6.3인치)보다 크다. 상단의 중앙 카메라 구멍을 제외하고 전면을 화면으로 채운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부분은 같다.

눈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디스플레이에도 차이가 있다. 노트10은 눈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지만, 노트10 라이트는 시력 보호 기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다. 노트10 라이트에는 노트10에

서 사라졌던 이어폰 단자도 다시 등장했다.

S펜을 탑재하긴 했지만 성능에선 차이가 있다. 노트10에서는 S펜을 움직여 화면을 전환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에어 액션’ 기능이 가능하지만 노트10 라이트에선 불가능하다. S펜의 버튼을 클릭해 단순 사진 촬영은 할 수 있다. 후면 카메라 배열에서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트10은 카메라 3개가 일렬로 배치된 반면 노트10 라이트는 사각형 모듈 형태로 위치한다.

애플이 ‘아이폰11’에 처음 적용해 인



갤럭시노트10(왼쪽)과 갤럭시노트10 라이트 제품 모습.

/구세윤 기자

덕션 디자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노트10 라이트는 보급형 모델이지만 카메라 성능에선 노트10과 큰 차이가 없다. 노트10라이트는 후면에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와 광각 렌즈, 망원 렌즈를 탑재했다. 전면에는 3200만 화소 카메라를 달았다. 노트10의 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 초광각 렌즈, 1200만 화소 슈퍼스피드 듀얼픽셀 렌즈와 망원 렌즈를 탑재했다. 전면에는 1000만 화소의 듀얼픽셀 카메라가 위치한다.

노트10라이트의 배터리 성능은 4500

mAh로 노트10(3500mAh)보다 우수하다.

삼성전자는 큰 화면과 우수한 카메라·배터리 성능으로 동남아 소비자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삼성전자 관계자는 “라이트가 가장 먼저 타깃으로 하는 곳이 개발도상국인데, 개도국 소비자는 스마트폰이 유일한 디바이스인 경우가 많아 영화도 보고 메시지도 보내는 등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큰 스크린을 선호한다”며 “한국, 유럽 소비자는 작은 스크린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개도국은 큰 사이즈가 잘 팔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노트10 라이트는 사람들이 느끼기 어려운 디자인이나 스크린 성능은 낮추고, 카메라나 배터리 성능은 뽐낼 수 있게 갖춘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노트10 라이트는 이달부터 70만원대에 유럽, 동남아 등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통업체도 노트10라이트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국내 출시 계획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밝혔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KT, 中企와 고성능 광중계기 개발

“기존 중계기 대비 속도 두배... 서비스 차별화”

고용량 데이터 동시에 전송

KT는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실내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고성능 광중계기를 개발 완료하고 실내 5G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내에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계기는 기지국 자원을 공유해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무선 데이터를 쓰는 사용자가 많으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저하되기도 한다.

KT가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해 도입한 고성능 광중계기는 네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고용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적용해 기존 중계기



KT 네트워크부 직원들이 경기도 안양시 흥플러스 매장 내에 고성능 광중계기를 설치하고 5G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KT

대비 두 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또 안테나를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가변적 시설이 가능해 내장형으로 설치 시에는 미관을 해치지 않고 건물 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눈에 띄는 한진의 성장... 영업이익 전년비 2배 ↑

(421억→910억)

매출액 2.5조, 전년 대비 5.5% 증가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택배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지난해 눈에 띄는 실적을 거뒀다.

한진은 2019년 4·4분기 누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910억원을 기록, 전년의 421억원에 비해 116.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액도 2조 57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5% 늘었다.

내친김에 ‘2023년 택배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위한 설비 확충 및 자동화 투자 지속과 대전 메가 허브(Mega-Hub) 구축 및 부산, 인천, 원주 등 각 지역에 터미널 신축을 통한 처리 물량 확대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호실적은 택배사업의 성장에 따른 자동화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해운·항만 물류사업의 재정부 등 지난 2017년부터 지속해온 물류사업 구조재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승호 기자 bada@

경영정상화 우선...한숨 돌린 기아·쌍용 상경투쟁·공장파쇄로 멍드는 르노삼성

기아 재교섭 통해 부분파업 중단
쌍용 노사 경영환경 극복에 한뜻
르노삼성 노조 게릴라성 파업 실시

새해 초 노사 갈등을 겪었던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노사간 손을 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자구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아차 노조는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서 추가 합의된 주요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 T·FT 운영 합의 등이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7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본교섭에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에서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지난달 13일 열



르노삼성노조 임금협상 쟁취 결의 집회

/연합뉴스

린 기아차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1만5159명)로 부결됐다.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18~19일과 24일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노사는 새해 들어 18차 본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13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14일 오후 사측과 재교섭에 나서면서 부분 파업을 중단했다.

앞서 쌍용차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노조원들의 동의율도 90%를 넘어선 상태다. 쌍용차의 추가 자구안에는 통상상여 200% 삭감, 목표달성(PI) 성과급 250만원 삭감, 상여 OT·제도개선 OT·연구업적 인센티브 삭감, 2020년 발생 연차수당 지급을 변경(통상임금 150%→100%)해 2022년에 분할 지급, 올해 말 일시금 100만원 삭감, 2020년 임단협 동

결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9월에도 복지 중단 등 자구안에 합의했다.

다만 르노삼성 노사는 입장치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게릴라성 파업을 실시하며 상경투쟁에 나섰고 사측은 부산공장 직장파쇄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노조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5만3335원(8.01%) 인상 ▲노조원 한정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원 등 26개 항목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기본급 인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다.

/양성운 기자 ysw@

‘강남 대체’ 목동 뜬다... 재건축 속도 11개 단지 안전진단

총 14개 단지 중 11개 단지 접수 3·7·10단지는 신청비용 모금 중 종상향 성공... 일반주거지 지정 재건축 시도에 매매·전세 상승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들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목동 6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9단지는 오는 2월, 5단지는 총선이 있는 4월 전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양천연대에 따르면 기존 목동 5·8·9·11단지 이어 12·13·14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지난 13일에는 1·2·4단지가 신청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접수한 상태다. 3·7·10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비용을 모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개시한 목동 1단지의 경우 3일 만에 3억원가량의 안전진단 비용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7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들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고 있다. 목동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단지는 현재까지 2억5000만원이 모였다. 이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비용으로 3억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목동 6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말 양천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 받았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2만7000여 가구)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9단지는 지난해 8월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총 37동으로 구성된 9단지는 6개동이 표본으로 분류돼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오는 2월 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며칠 앞서 목동 1~3단지는 종상향 문제가 해결됐다. 목동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인 4~14단지보다 허용 용적률이 낮

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성공하면서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목동 14개 단지는 모두 3종(용적률 250%) 일반주거지역이 됐다. 다만 서울시는 종상향 조건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시 허용 용적률의 20%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은 A~E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용역비는 건물 면적에 비례해 산정된다. 목동 단지의 경우 20여 동을 갖춘 단지는 표본을 4개동으로, 30동 이상 대단지는 표본을 6개동으로 잡는다. 표본 동수가 어느 정도나에 따라 비용은 2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 든다. 기간은 5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재건축 시도에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 목동 아파트는 3.3㎡당 평균 매매가 3540만원, 전세 1815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전 주 대비 매매가는 0.11%, 전세는 0.12%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진단검사를 가장 먼저 통과한 6단지의 경우 최근 2억~3억원가량 호가가 오른 매물도 있다.

9단지는 71.37㎡가 지난해 11월 12억 3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만에 1억 원 이상 오르며 13억 7000만원에 팔렸다. 5단지 65.08㎡는 14억 8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올랐으며 7단지 74.12㎡는 11월 16억 3000만원에서 12월 1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거래량은 줄었다. 지난해 11월 목동아파트 거래량은 170건이었던 것에 비해 12월 목동아파트 거래량은 27건에 불과하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 팀장은 “8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강남 대체 수요로 목동을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가격 오름세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규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예탁원, 700명 직·간접 고용... 출연기금 300억 돌파

일자리창출TF 2년간 성과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7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 목표를 넘어 창업 지원과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1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700여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해 출연한 기금도 300억원을 넘어섰다.

◆ 700여명 일자리 탄생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7년 10월 일자리 추진 총괄을 위해 일자리창출위원회와 좋은일자리창출추진전담반(TF) 설치하고, 이듬해 2월 일자리창출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사회적가치 구현 중심의 ‘일자리 종합추진계획 리뉴얼’을 내놔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나 사회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예탁결제원은 제일 먼저 부산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원에 나섰다.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남부발전, 주택금융공사, 캠프, BPA, BMC 등 7개 기관의 참여로 약 10억 4000만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28개 기업이

5억 2000만원의 금융지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24개 기업이 6억원을 지원받았다.

예탁결제원은 신규채용을 통한 ‘직접 고용’에도 앞장섰다. 경기 부진 속에서도 지난 2018년 총 45명을 신규채용하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50명을 채용했다. 체험형 청년인턴제를 통해 28명의 청년을 채용키도 했다.

예탁결제원이 주도해 운영하고 있는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역시 5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1월 예탁결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딩을 받은 197개 기업이 535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발전기금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늘었다.

지난 2018년부터 예탁결제원은 ‘사회투자펀드’와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에 총 10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 활력을 도

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선순환을 기대해서다.

예탁결제원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또는 KSD 비즈니스에 참여 중인 창업·중소기업에 총 200억원을 저리로 대출했다. 기업별 최대 3억원, 대출금리는 0.95%포인트(최대 1.4%포인트) 감면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국회가 후원하고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예탁결제원은 ‘일자리창출부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9월 개발한 전자증권시스템과 12월 건립한 증권박물관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자산배분 AI 랩

하나금융투자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자산 배분에 적용해 투자하는 ‘하나 THE ONE AI2랩’(하나 더 원 에이이 스퀘어랩)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 THE ONE AI2랩’은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 환매조건부채권(RP) 및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인공지능(AI)으로 리스크와 수익률을 분석해 손님이 추구하는 수익률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하나 THE ONE AI2랩’은 4가지 스타일이 있어 기대 수익률에 따라 손님이 선택할 수 있다.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S스타일’(Safe·안전), 채권과 주식 비중이 비슷한 ‘M스타일’(Moderate·보통), 주식 비중을 높인 ‘A스타일’(Aggressive·공격적), 레버리지 ETF를 이용하는 ‘L스타일’(Leverage·레버리지)이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금융티아이 내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매크로 변수들을 기초로 과거 17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AI(인공지능)모델을 개발했다.

권장된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장은 “하나 THE ONE AI2랩은 하나금융그룹 내에 융합기술원의 AI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상품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운용하며 손님이 각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가지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나재철, 소·부·장 펀드 가입으로 공모펀드 지원

(금투협회장)

사모투자재간접 펀드 출시 손실 32% 우선 부담 구조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5일 우리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을 위한 사모투자재간접 펀드 출시를 기념해 하나금융투자 서울 여의도 본점 객장에서 ‘골든브릿지리인보우 중소성장기업 증권 투자신탁’ 가입행사를 가졌다.

사모투자재간접 펀드는 지난 10월 금투협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자산운용업계 테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출시했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엄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가운데)이 15일 하나금융투자 서울 여의도 본점 객장에서 ‘골든브릿지리인보우 중소성장기업 증권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격한 기준으로 심사·선정한 8개의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를 편입하고 각 사모펀

드는 소재·부품·장비기업(비상장 포함)의 주식과 메자닌 등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분산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모운용사와 한국 성장금융이 사모펀드별로 약 32.4%의 손실(제비용포함)을 우선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설계, 공모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설정 후 48개월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다. 때문에 투자자의 환급성을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나재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그 투자성과가 공모펀드 투자자에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불황뚫고 흑자’ 달성... “힘들수록 장기성장 초석 다져야”

보험, 飛上 2020 전략

(4) NH농협생명

홍재은 사장 ‘흑자 전환’ 2년 연임
가치경영 등 4대 경영방침 수립

암·디스크 등 보험상품 연일 출시
경영인프라 고도화, 전문인력 육성



홍재은 NH농협생명 사장(왼쪽)이 10일 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2020년 사업추진 전략 회의'에서 김재영 감사(가운데), 최정아 고객업무지원팀장(오른쪽)과 소버자보호실천 결의를 하고 있다.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가치 경영 ▲혁신 경영 ▲현장 경영 ▲성과 경영 등을 4대 경영방침으로 수립했다. 경영정상화를 통한 경영체질 개선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재은 농협생명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2020년 사업추진 전략회의'에서 "악화일로에 놓인 보험업의 경영여건상 영업추진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힘든 상황일수록 4대 경영방침을 명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장기적인 성장에 초석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난해 3분기까지 247억원의 누적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농협생명은 11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3저' 현상을 겪고 있는데다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등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농협생명도 지난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농협생명은 홍재은 사장을 1년 더 유임하면서 '안정'을 택했다. 실적도 소폭 줄긴 했으나 보험업계 불황속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그동안 농협생명의 대표이사인 대부분 2년 임기를 채웠다는 점에서 연임이 예상된 바 있다.

◆ “경영여건 어려워... 지속성장 기반 마련”

농협생명은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

한 주요 실행방안으로 ▲수익성·영업력 겸비한 영업문화 구축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 ▲경영인프라 선진화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우선 농협생명은 수익성, 영업력 제고를 통해 영업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판매·관리 역량 개발을 통한 영업력 증진도 추진한다.

농협생명의 올해 실적 목표는 보장성 보험 350억원이다. 농협생명은 올해 사업추진 전략회의에서 지난해 영업추진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성과지표를 부여해 조기 추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달 들어 연일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농협생명은 지난 2일 하나의 고지사항으로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하나만

문는NH암보험(갱신형, 무배당)'을 출시한데 이어 당뇨·척추·관절 보험 신상품도 선보였다.

당뇨병 진단과 합병증을 한 번에 보장하는 '당뇨케어NH건강보험(갱·무)', 당뇨병 진단자도 가입할 수 있는 '당뇨케어NH건강보험(당뇨병진단자·갱·무)', 디스크와 관절염을 보장하는 '허리업(UP)NH척추보험(무)' 등 건강보험 3종이다.

홍 사장은 "새해를 맞아 건강한 사람도 유병자도 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입과 보장의 폭을 넓혀 더욱 든든해진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더 많은 고객에게 이로운 보험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생명은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농협생명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운용자산이익률은 2.61%로 전년 동기(2.95%)보다 낮아졌다. 올해에는 수익성 확보, 보유이원 방어를 위한 자산군별 수익률을 높이고 변동성 관리를 강화해 자산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인프라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미래대응을 위한 경영인프라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인력 육성으로 조직경쟁력을 확보하겠

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핀테크, 디지털 마케팅 등 디지털 사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 범농협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농협보험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사장은 "저금리·저성장의 시대에서 향후 보험업의 경영여건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속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견고한 가치경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 혁신과도 전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미래 경영환경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홍재은 NH농협생명 사장.

폐기된 손상화폐 10년만에 최대

한은, 손상화폐 6.4억장 2.2% ↑
1만원권 3.3억장, 1천원권 2.3만장 뺀

지난해 손상돼 폐기한 화폐 규모가 5만원권이 발행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9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지난해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6억4000만장(4조3540억원)으로 전년 6억3000만장(4조2613억원) 대비 1000만장(2.2%) 증가했다. 이는 5만원권이 발행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은행권은 6억1000만장(4조3516억원)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3억3000만장(폐기은행권의 53.5%), 1000원권 2억3000만장(37.8%), 5000원권 4000만장(6.7%), 5만원권 1000만장(2.0%) 순이었다. 주화는 2590만개



(24억원)가 폐기됐다. 화종별로는 10원화 1110만개(폐기주화의 42.9%), 100원화 990만개(38.2%), 50원화 260만개(10.1%), 500원화 230만개(8.8%)로 집계됐다. /김희주 기자

수출입물가, 환율·유가 업고 동반 상승

2019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전월비 0.8% ↑, 전년비 3.1% ↓
환율효과 제거땀 전월비 0.1% 상승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가 9개월 만에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율 효과를 본 데다 국제유가도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97.54(2015=100 기준)로 전월보다 0.8% 올랐다. 지난해 8월 1.4% 상승한 뒤 석 달 연속 하락했다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 내려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수출물가를 끌어올린 건 환율이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1175.84원으로 11월(1167.45원)보다 0.7% 상승한 영향



이 컸다. 다만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환율 효과에 D램(0.6%), TV용 LCD(0.7%) 등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이 전월 대비 0.6% 올랐다. 다만 이 역시 환율 효과를 제거할 경우 0.1% 하

락했다. 국제유가 상승도 수출물가를 밀어올렸다.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91달러로 전월(61.99달러)보다 4.7%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경유(4.8%), 벙커C유(10.2%), 나프타(6.7%)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3.8% 상승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08.84로 전월(107.11) 대비 1.6% 올랐다. 수입물가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계약통화 기준으로도 전월 대비 0.9%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5.5%) 등 광산품 가격이 2.5% 올랐다. 나프타(6.5%), 벙커C유(7.8%) 등 석탄 및 석유제품도 6.0% 상승했다. 동정련품(4.2%) 등 제1차금속제품도 1.3% 올랐다. /김희주 기자

신한은행 경기도 소상공인에 1000억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특별 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5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4000여 개 업체에 신규 대출이 가능한 1000억원 규모의 대출 한도를 조성했다.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별 보증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저 연 1% 후반

대의 저금리로 특별보증 대출을 진행한다.

보증료 감면과 보증 한도 우대혜택도 동시에 제공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 황금 쥐띠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신한생명 마케팅 위한 브랜드 '진품' 론칭

신한생명은 주력 상품군의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진품'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진품은 '진심을 품다'의 줄임말로 고객에게 전하는 진심을 뜻하는 동시에 사전적 의미의 '진짜 물품'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브랜드 론칭을 위해 신한생명의 대표상품들이 개정 출시됐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진심을 품은종신보험'의 주요 보장기능인 '올페이급여금'을 브랜

드 컨셉으로 만들어 주력 상품군에 선택약으로 탑재했다.

올페이급여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할 보험료를 더해 진단금을 보장받는 형태로 상품 가입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치료비로 모두 지급받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진품 컨셉의 특약이 탑재된 상품은 총 5종으로 ▲진심을 품은종신보험 ▲진심을 품은변액종신보험 ▲진



심을 품은착한보장보험 ▲진심을 품은또박한생활비암보험 ▲진심을 품은참좋은암보험 등이다. /김희주 기자

2020 가치투자 청라에서 시작됩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광저우 캔톤타워 등과 함께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초고층 랜드마크 시티타워 바로 옆 청라국제도시개발의 중심인 국제업무단지 내 첫번째!! 오피스텔 분양- 청라 큐브 시그니처 1015



청라 국제업무단지
큐브 시그니처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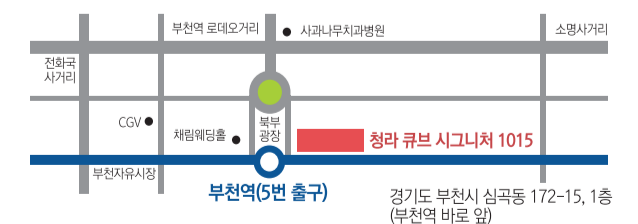


지금까지 청라의 오피스텔은 주거지역인 청라 1, 2동에 집중공급! 청라의 핵심, 국제업무단지 내 단일규모 최대 오피스텔- 큐브 시그니처 1015

국제업무단지의 풍부한 임대수요 하나금융타운의 통합 데이터센터, 글로벌 인재개발원, 금융지원센터 등 입주와 함께 2023년 분사 이전확정으로 풍부한 임대수요 보유
북합의료타운(2024년 예정)은 의료전문병원, 의과대학 및 의료지원시설 및 임상연구시설 등 입주로 청라의 북합의료공간으로 조성 예정
기존 스타필드보다 약 40% 큰 규모로 조성중인 청라 스타필드(2024년 예정)는 문화, 레저, 숙박 등 청라의 대표적인 복합쇼핑몰로 기대

더 빠르고 편리한 광대역 교통여건 지하철 7호선 시티타워역(2027년 예정/총 10.6km, 6개역 신설예정)연장 확정으로 청라에서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
BRT 개통(9호선 가양역까지 운행 중), 청라국제도시 내부 교통망인 GRT, 공항철도, 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
2020년 착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청라와 영종국제도시와의 연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 기대

다양한 편의시설 최상급 공간설계 448m 세계 6번째로 높은 초고층 전망 타워인 시티타워(2023년 예정)완공 후 향후 청라국제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의 역할 기대
단지 바로 앞 호수공원과 커널웨이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의 최대 위락시설의 중심지역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센터, 셀프세차장, 하는정원, 카페테리아 등 최상급 편의시설과 풀 퍼니스드·풀 빌트인 등 넓고 편리한 호텔급 실내공간



시행 시공 **7(주)태릉건설** | 보증사 **HUG** | 협력은행 **NH농협은행**

청라 국제업무단지 매머드급 규모 | 총 1,015실 (65m²~102.60m²)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업장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에 사용된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건물크기, 위치 등은 실제보다 크거나 가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납부은행: 농협
- 신청금: 100만원
- 계좌번호: 301-0262-9243-31
- 예금주: (주)태릉건설
- 신청금 입금순으로 호수 지정 / 미계약시 신청금 전액환불

1522-0119

매장수 1위 올영, 온라인도 강화...O2O 키우고 물류혁신

(올리브영)

매장의 접근성, 온라인의 편의성 결합 주소지 인근매장서 배송해 시간단축 분산됐던 물류시설 통합해 효율 ↑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장의 접근성과 온라인몰의 편의성을 결합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공격적인 매장확장으로 H&B 스토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올리브영이 온라인 사업도 함께 강화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시간 내 배송 '오늘드림' 전국 확대 올리브영은 온라인·모바일 앱 구매 시 상품을 3시간 내에 고객이 있는 곳까지 즉시 배송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오는 3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센터가 아닌 주소지 인근매장에서 포장·배송(Ship from Store)하는 방식으로, 전국 매장망과 연계해 배송 시간을 단축 시킨 것이 강점이다.

'오늘드림'은 2018년 12월 론칭 당시



올리브영 직원이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태블릿 PC로 피부 문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J 올리브

서울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후 빠른 배송에 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 1년 만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6대 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세종시, 제주 일부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올리브영은 오는 3월까지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넓힐 계획이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일 평균 주문 건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론칭 당시와 비교해 10배 가량 주문이 늘었으며, 즉시 배송이 가능한 상품 수도 초기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물류 혁신 가속화

지난해 11월 올리브영은 경기도 용인에 수도권 매장 온라인몰 물류를 담당하는 통합물류센터를 오픈했다.

기존 경기도 군포 복합물류센터를 확장 이전한 것으로, 4개동에 분산됐던 물류 시설을 지상 4층 규모(면적은 7만 2000㎡)의 단일 건물로 통합해 효율을 높였다.

올리브영은 센터 대형화를 통한 공간 효율화와 물류 시스템 정교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수도권 통합물류센터는 기존보다 1.5배 이상 큰 규모로 각종 마다 화물차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적재 작업이 용이하게 했고, 층고를 높여 적재 효율이 25% 이상 개선됐다. 상품의 입고, 적재, 출고 과정 최적화를 위해 창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도 고도화했다.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760여

개의 올리브영 수도권 매장 물류와 온라인몰 주문 상품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종시 중부 복합물류센터가 담당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오늘드림과 '수도권 통합 물류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 시너지를 통한 배송 서비스 혁신에 우선 중점을 두고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며 "오프라인 채널 운영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온라인 사업과의 시너지를 본격화하며 '온니 채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계허문 소객 소통으로 쇼핑편의 ↑



올리브영 수도권 통합물류센터 조감도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GS25, 한해동안 ATM 거래액 11조 돌파

ATM 이용 6580만건

편의점에서 ATM(CD)을 통한 현금 인출 거래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GS25는 이달 20일부터 SC제일은행 고객이 GS25에서 운영하는 ATM을 통해 현금 인출 거래를 할 때(영업 시간 내)출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SC제일은행과의 제휴로 GS25에서 출금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을 포함한 총 8곳으로 늘었다.

GS25는 총 점포 중 약 85% 수준에 해당하는 전국 1만1800여 점포에서 ATM을 운영 중이다. 이는 업계 최대 수준으로 작년 한해 동안 입출금 및 이체 거래 금액 실적은 총 6580만건을 돌파했고 연간 거래 금액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거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매일 300억원 이상의 금



장호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왼쪽)이 김중수 GS리테일 MD본부장(오른쪽)과 업무 협약 양해각서(MOU)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액이 GS25의 ATM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

GS25는 전국망의 점포를 통해 '우리 동네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2017년부터 주요 시중은행들과 손잡고 ATM거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왔다.

/신원선 기자

공영쇼핑, 식품명인들 모여 전통식품 선봬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상품 소개

공영쇼핑은 설을 앞둔 오는 17일 '식품명인' 상품을 6시간 동안 편성하는 '명인대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인대전은 전통식품의 계승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의 상품을 집중 소개하고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공영쇼핑이 매년 명절마다 진행하고 있는 '식품명인' 특집으로 공영쇼핑은 전통 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식품명인 상품을 발굴해 왔다.

17일 특집전에선 최명희 명인의 '안동 제비원 메주'(오전 10시 30분), 강봉

석 명인의 '명인 견과바'(오전 11시 30분), 김순자 명인의 '김순자 김치'(오후 12시 40분), 서분례 명인의 '서일농원 청국장'(오후 1시 40분), 김규훈 명인의 '명인 한과 세트'(오후 2시 40분), 김영근 명인의 '도토리묵 세트'(오후 3시 40분)가 방송된다. '명인 견과바'와 '명인 한과 세트'는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 패키지로 구성했다. '서분례 청국장'은 자동주문 시 3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명인대전의 상품 모두 모바일 결제 시 5% 즉시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5만원 이상 상품은 농협카드 결제 시 5% 추가 청구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수소경제, 충전소·국제표준 등 아직 미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세미나 노용래 "미래먹거리 위한 중요 과제"

지난 1년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많은 성과를 도출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과 국회 수소경제포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최로, 이원욱·노용래 국회의원 및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월부터 추진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오는 17일 1주년을 맞는다.

노용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제일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수소차의 경우, 작년에 세계 판매량의



15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60%를 차지했다. 또한 며칠전에는 수소경제육성 관련 법이 통과돼 큰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아직 수소충전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 수소경제에 있어(한국이) 앞서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후발주자라 노력해야 한다. 정책적·입법적으로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본부장은 "수소경제 추진성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 전기차의 연간 보급 실적이 세계 최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발전소도 2018년에 343MW에서 지난해 464MW로 지속적인 확대 추세"라면서도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수소충전소, 즉 인프라 구축이 외국에 비해 부족하다. 2020년에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조기 확보, 홍보 통한 수용성 개선, 국제협력 등 3가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에 있어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흥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수소경제를 추진한 뒤로 작년에 처음 국제 표준을 한 건 제정했다.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었다"며 "앞으로 표준제정은 산업체들이 해줘야 한다. 다만 산업체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제정을 할 여력이 없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이다. 현재 표준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귀뚜라미, 친환경 보일러 사면 온수매트 반값

귀뚜라미는 환경부인증 친환경 보일러 구매 시 온돌 온수매트(EM7 시리즈 2종)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월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 행사는 가까운 귀뚜라미보일러 대리점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거꾸로 N EW 콘덴싱 가스보일러'와 'AST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거꾸로 NEW 콘덴싱 가스

보일러와 AST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열효율 92% 이상, 질소산화물(NOx)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등 높은 수준의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다.

행사 기간 동안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고객에게 정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0만원의 정부보조금과 함께 프리미엄 온돌 온수매트 EM771(싱글), EM773(퀵) 2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



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정부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 여부는 보일러 구매 시 귀뚜라미보일러 대리점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무료 와이파이 등 돈 더 푼다 vs 재정건전화 대전환

〈與〉

〈野〉

與野, 21대 총선공약 비교

민주당, 2년내 5만3000개 구축 정보격차 줄이고 가계통신비 경감
한국당, 관치경제→자율경제 전환 '재정건전화법' 적극추진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 국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 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준비에 돌입한 정치권이 공약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와이파이 구축 등 생활 복지에,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확대 등 경제 정책 대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이 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사용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의 정

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시내버스 5100대에 추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2956개의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2358교 등 5300개소에도 추가로 달겠다는 구상이다.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경우 2000개소를, 문화·체육·관광시설에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에도 추가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은 물론 공약도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구

성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당내 정치연구기관 민주연구원과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와 20·30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청년특별예산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같은 날 "대한민국 경제가 빈사 상태"라며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먼저 "복지 급증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해 3년 뒤에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주력산업

위기 가속에도 대안이 없어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첫 공약으로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 관념 전환 ▲기업 지원 집중에서 사업 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의 개선을 목표로 희망 경제 공약 발표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먼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미래 세대에겐 떠넘겨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기존 재정운용제도와 법령의 재정건전성 관리 범위를 넘어선 재정 환경의 본질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 재정 총량이 실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한국당 첫 공약이다.

재정건전화법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을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이다.

채무준칙의 경우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D1)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계획이다.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 +0.5% 이하'로 한다.

두 번째 공약은 탈원전(원자력발전소) 정책을 폐기해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한국당 목표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노동시장을 개혁해 딱 막힌 경제 활판에 피가 돌게 하겠다"며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 정책 마련을 내걸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與 '이낙연 6년만의 귀환' vs 野 '혁통위 통합가속'

총선체제 접어든 정치권

이낙연, 내달 초 종로구 이사 예정 황교안 "미워도 모두 합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5일 제1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본격 총선체제에 접어들었다. 집권여당에선 '총선 간판'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복당했고, 보수권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이 전 총리가 함께 자리했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 지사에 선출된 후 6년만에 복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먼저 "이 전 총리께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헌신하시고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세우셨다"며 "이 전 총리의 경륜·지식·경험을 바탕으로 당에 복귀해 역할을 해주실 텐데 당으로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환대했다.

이 전 총리는 "앞으로 매사 당과 상

의하며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문화상 국회의장도 예방해 여의도 복귀를 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임기를 마친 후 총리공관에서 나와 서울 잠원동 자택으로 갔다. 이 전 총리는 2월 초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전 총리의 이사

에 대해 총선 출마 지역구와 연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 전 총리는 "(이사 이유가)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청년 시절 제일 많이 산 곳"이라고만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당 상임고문으로도 위촉돼 당사에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보수권에선 통합 논의가 기로에 섰다.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

합추진위원회는 전날 첫 야권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이날도 "미워도, 싫어도 지금은 모두가 합해야 할 때"라고 거듭 밝혔지만, 새보수당은 '당 대당' 통합 의지를 밝히면서도 통합 방식엔 이견을 보였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15일 제1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가 '우리공화당까지 통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에 탄핵의 길을 건너고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다"며 "새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집을 허물고, 집주인도 새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현재 보수권이 논의하는 통합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측근 김도식 비서실장을 통해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석대성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형철·고민정·유송화 총선출마 위해靑 떠나

이번주 총선인사 마무리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의 교통정리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형철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다가올 총선을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 보좌관은 대전 출마가 유력하다. 주 보좌관은 대전 동구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주 보좌관은 대전 동광초와 충남중, 대신고,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다. 하지만 출마 지역은 당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주 보좌관은 40대 나이에 SK그룹 계열사 CEO를 지낸 실물경제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 정부 때 경제보좌관으로 발탁, 재계·정계간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핵심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주도하는 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작년 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대변인직을 맡은 3인(박수현·김의겸·고민정)과 춘추관장직을 맡은 2인(권혁기·유송화) 모두 다가올 총선에 출마하는 이색적인 기록을 세우게 됐다. /유승준 기자 dn1114@

'18세 선거' 참여위해 유튜버와 협업

선관위, TF구성·대응계획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태스크포스(TF·특별임시조직)를 구성하는 등 종합대응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F 구성을 통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적 선거 관여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할 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 지급하는 내용을 안내해 신고·제보도 독려하기로 했다.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유명인사)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새내기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웹툰·랩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매체를 활용해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를 찾아가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스터·현수막·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선거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전담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는 고발하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

계와 훈방 등의 조치를 하되, 반복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 사안을 조사할 시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는 일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 참여 정당이 증가할 것인 전망에 대비해 반복적인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하고 장비·인력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대성 기자

고려대-다음소프트

빅데이터 연구개발 위한 MOU 체결

지역축제,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 모델 발굴, 연구 과제 협력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은 다음소프트와 지난 13일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축제 관광 콘텐츠 서비스(Content as a Service) 개발 ▲빅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 개발 ▲국가 연구개발 과제 협력 ▲빅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 및 인력 개발 교류 등이다. 김은기 단장은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축제와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공동 추진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2019년 모든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기반 '축제



권미경 다음소프트 이사(왼쪽부터), 윤준태 다음소프트 부사장,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김은기 단장, 이영한 부단장 /고려대학교

절대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소프트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평가지표로 활용, 전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별한 바 있다.

다음소프트는 지난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리포트 서비스인 'AI Report'를 출시, 현재 이슈, 축제, 관광,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 외국인 신입생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삼육대학교

삼육대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글로벌 리더 양성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는 14일 2020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영식에는 올해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40명과 한국인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수강신청 방법과 교육과정, 학사일정, 장학금, 특성화 활동, 교수 상담 등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와, 외국인 신입생과 한국인 선배들이 함께하는 제기차기 놀이 웃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리는 국제적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 한국 교류·홍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됐다. 이론교육, 문화체험, 현장실습, 인턴십 실무교육, 글로벌 리더 특강 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와 적용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3년만에 학사가능' 건국대 학은제 입학설명회

(미래지식교육원 학점은행제)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교내 산학협동관에서 2020학년도 학점은행제 입학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8개 전공(스포츠건강학, 사회복지학, K뷰티산업융합학, 의상디자인학, 부동산학, 경영학, 영상영화학, 국제무역학)의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수시, 정시에 관계없이 100% 면점으로 입학해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위 취득 후 학사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등도 가능하다.

입학생들은 도서관과 기숙사 등 각종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각 전공별로 평일 주간·야간, 주말 강의를 개설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관계자는 "OT 및 MT, 축제,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아리 등의 다양한 학생활동 제공과 타 대학 등록금 절반 수준의 저렴한 학습비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빠르면 3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입학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연세대 도서관에 '스마트 스페이스' 구축

첨단ICT 적용 실험적 혁신공간

대학 최초 '스마트 스페이스' 오픈
공모전서 학생들 아이디어 발굴
신기술, 창업·산학협력과 연계 지원

연세대 대학 도서관이 국내 대학 최초로 스마트 스페이스 'Y-Smart Space'를 구축했다.

연세대 학술정보원(원장 이봉규)은 14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 100평 규모 공간에 대학 도서관 최초의 스마트 스페이스를 구축해 오픈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스마트 스페이스는 5G시대 융복합 서비스의 집결체로, IoT, 실감미디어, AI 등 첨단 기술요소가 융합된 지능형 공간이다. 연세대 학술정보원은 고등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스페이스를 조성해 다양한 ICT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 스페이스는 특히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18년 종합가구기업 (주)넵스의 스마트스페이스 연구기금 기부를 통해 공간 구축을 시작했고,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 스페이스 공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했다.

수상작을 토대로 공간 설계를 진행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하고 감각적인 요소들을 실제 공간에 적용했다. 스마트 CCTV, IoT 환경관리, 스마트 어시스턴스 등 첨단 ICT가 적용된 실험적인 혁신공간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협업,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되는 창업이나 산학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아울러 스마트 스페이스



연세대학교는 14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에서 스마트 스페이스 오픈식을 개최했다.



연세대학교는 14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에서 스마트 스페이스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우현 M RAG 대표(왼쪽부터), 임호균 연세대 생활과학대학 교수, 장양수 연세대 의과대학학장, 박용욱 (주)넵스 회장, 연세대 김용학 총장,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 이봉규 연세대 학술정보원장, 정영기 홍익대 중앙도서관장, 지인영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장, 서광욱 Unity 코리아 총괄본부장. /연세대학교

와 연계된 실감미디어 전시 체험 공간 'Y-Scape'와 실감미디어 교육플랫폼 'AR Portal'도 함께 선보인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Y-Scape는 11미터 규모의 햅틱 스크린과 미디어 솔루션 연동을 통해 몰입감 높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산업융합형 실감콘텐츠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실감콘텐츠를 전시해 학생들에게 실감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이다.

AR Portal은 최신 AR 기술을 기반으로 Y-Scape 공간을 가상현실로 재현하고 스마트 스페이스의 가구를 AR 기술로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학생들이 실감콘텐츠를 쉽게 경험하고, 실감콘텐츠 개발 커리큘럼을 통해 실제 개발 방법을 학습하도록 지원해 학생들의 실감미디어 제작 활용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형사 미성년 연령 만13세미만 하향 추진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
"중대한 학교폭력, 초범도 구속수사"
교육계, '실효성 의문' 우려 목소리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축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한 살 낮추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올해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축법소년연령을 하향(만14세 미만 → 만 14세 미만)하고,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토

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기대된다.

특히 축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가 교원, 학생, 학부모 5만4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9년10월1일~15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8%, 2019년 3.6%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축법소년 연령 하향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제1차

(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축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결정이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뼈대로 삼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축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는 데다가, 되려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법무부가 축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함에 대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 중 15~18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25% 수준이었으나,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 간 줄곧 0.1~0.5% 수준이었다. /한용수 기자

2020년 새해에도
 가족의 건강은 베콤씨로!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LS, 신년 맞아 불우이웃 위해 20억 쾌척
LS그룹이 신년에도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LS그룹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앞줄 오른쪽부터) 허영길 LS 이사, 안원형 LS 부사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강주현 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그룹



KB국민은행,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협약
KB국민은행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보증 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영목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



SC제일은행, GS리테일과 고객 편의증대 맞춘
SC제일은행은 금융·유통서비스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GS리테일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 내 CD·ATM기에서 SC제일은행 거래 수수료를 낮춘다. 오는 20일부터 SC제일은행 고객들은 전국 GS25에 설치된 1만여 대의 제휴 CD·ATM기에서 SC제일은행의 기기와 동일한 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장호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왼쪽)이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한국필립모리스, 아태지역 우수 고용주 인증 획득
한국필립모리스는 우수고용협회로부터 '우수 고용주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에서의 우수 고용주로 함께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인증을 준 TEI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고용주를 검증하는 글로벌 기관이다. 프라빈 우파디에 한국필립모리스 피플앤컬처 총괄 전무(왼쪽)와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고등급'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주관한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건강검진의 관점과 사후 관리 관련 항목, 지역 사회 산업보건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대목동병원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유지해야



김필수의
차 이야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약 7만대 정도의 보급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전기트럭이나 전기이륜차 등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안에 누적대수 2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도 올해에만 1만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00만원 삭감되긴 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매 고객의 혜택은 더 증가한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충전기 설치가 더욱 절실한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요금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중 기본요금 부과는 충전기 확산에 크게 역행하는 부분이라,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한 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초소형 전기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보조금 문제이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극히 일부 줄어들기 시작하면

서 동시에 초소형 전기차의 보조금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전기차는 시작된 지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시작한 반면, 초소형 전기차 보급은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 전기차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으나 초소형 전기차는 중소기업 중심의 진입기다.

초소형전기차는 중소기업 제품이라 보조금이 구매로 연결되는데 그역할이 크다. 2018년 450만원의 보조금이 지난해 420만원으로 줄었다. 현재 연간 수천대 정도의 판매지만, 초소형 전기차의 가능성은 출퇴근용, 등하교용, 시장용, 관광지용, 무공해단지나 공장용 등 무궁무진 하다.

특히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륜차 등 다양한 오염물질로 가득한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는 전기차는 바로 초소형 전기차가 많다. 향후 입증된 국내 모델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된다면 중요한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탄생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일반 전기차 정책과 달리 길게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유지에 대한 타당성이 크다.

최근 고가 차량에도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사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고급 수입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유럽과 같이 기준 판매가격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조금 연장 결정 및 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특수성과 시장성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크게 다른 시장인 만큼 정부가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판단하고 냉정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꼭 작년과 같은 420만원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CJ대한통운, 작년 누적 사회봉사 2.5만 시간

사랑의 도시락, 교통안전 캠페인 등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율 95%로 ↑

CJ대한통운 임직원들이 지난해 누적 사회봉사활동 2만5000시간의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비행기로 지구 약 550바퀴를 도는 것과 맞먹는 시간이다.

CJ대한통운은 2019년 임직원들의 누적 봉사활동 시간을 집계한 결과 총 2만5628시간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누적봉사활동 시간은 2만1545시간으로 이보다 4083시간(19%) 늘어났다. 특히 CJ대한통운은 2017년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2만시간을 처음 돌파한 이후 3년 연속으로 2만시간을 넘어섰다.

봉사활동 참여율도 높아졌다. 2018년 봉사활동 참여율은 81%였지만 지난해 이보다 14%p 높은 95%로 상승했다.

CJ대한통운은 전체 회사 단위의 사회봉사조직인 '희망나눔' 봉사단 운



CJ대한통운은 2019년 임직원들의 누적 봉사활동 시간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19% 늘어난 총 2만5628시간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와 함께 정기적으로 특수학교 및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전동휠체어를 무료로 정비해주는 '달려라 행복한 전동이'는 물류기업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임직원 586명이 참여한 사랑의 도시락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 도시락

을 배달하고 안부를 물으며 건강상태까지 체크하는 전형적인 지역사회 기여형 봉사활동으로 꼽힌다.

매년 연말 전국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실시되는 김장봉사(331명 참여)와 복지관 방문 봉사활동(918명 참여), 공부방 방문 봉사(514명 참여) 등도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사

- ◆ 통계청 ◇ 과장급 인사 △행정자료관리과장 김경희
- ◆ 한국인터넷진흥원 ◇ 본부장 보임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신대규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이석래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황성원 ◇ 단장급 보임 △미래정책연구실장 최광희 △융합보안단장 이용필 △개인정보정책단장 오용석 △개인정보대응단장 이종화 △보안인증단장 김호성 △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박희운 △인터넷기반단장 조준상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김희은 △데이터이용기술지원센터장 심동욱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장 이종구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장 이항배

부음

- ▲ 김배길씨 별세, 김현수·규성·영표·미리씨 부친상, 주철현(전 여수시장)씨 장인상=15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8시, 010-4878-4515
- ▲ 임정수씨 별세, 홍준식(전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씨 모친상, 이봉규(현대자동차 좌동 서부점 대표)씨 장모상=15일 오전, 부산의료원 특2분향실, 발인 17일, 051-607-2990
- ▲ 김태수씨 별세, 김용운(연합뉴스 콘텐츠평

가실 이사대우)·김용복(중앙종합관리과장)·김용희씨 부친상=14일 오후 5시 30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42-220-9972

- ▲ 광현주씨 별세, 박승호(전 농협은행 지점장)씨 부인상, 박윤술(서울신문 사진부 기자)·익서(전문건설공제조합 과장)씨 모친상=14일 오후 8시 55분, 경기 안양평촌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10분, 031-384-4634
- ▲ 양희정씨 별세, 양아다·기두(경희길 한의원 원장)·아선(뉴푸드 대표) 부친상, 김효성(kbc 광주방송 취재기획부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씨 장인상=15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17일 오전, 062-527-1000

모바일 앱으로 전자영수증 자동발급

현대백, 종이영수증 없앤다

3년내 종이영수증 제로화 목표
3월까지 21개 백화점·아울렛
전 점포서 전자영수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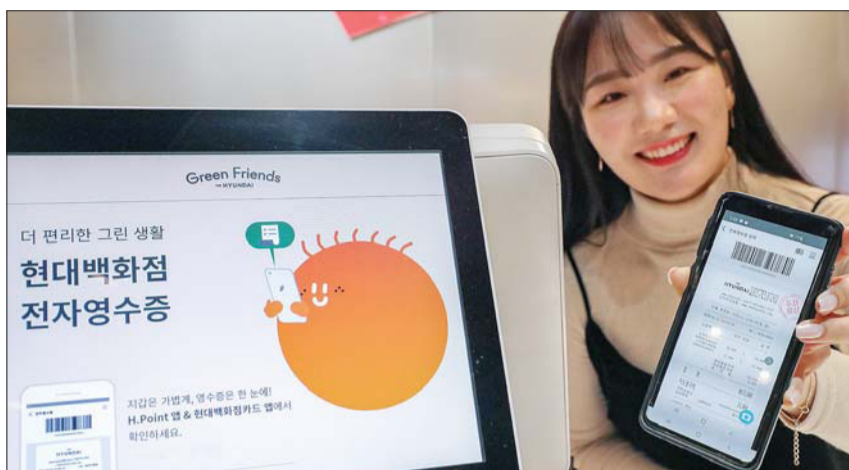
현대백화점이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각 매장에서 상품 구매시 기존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앱을 통해 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현대백화점은 향후 3년내 종이 영수증 발급을 제로화 하겠다는 목표다.

현대백화점은 15일부터 백화점 3곳(판교점·디큐브시티·킨텍스점), 아울렛 2곳(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21개 백화점·아울렛 전 점포에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 도입은 지난해 8월 환경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종이 영수증 없애기'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후속 조치다.

전자 영수증은 현대백화점카드 회원 또는 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회원이면 누구나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 발급되며, 'H포인트' 앱과 '현대백화점모바일카드' 앱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영수증에는 결제 정보·사업장 정보 등 기존 종이 영수증에 담았던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에서 직원이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어, 사은행사 참여·주차 정산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현대백화점 회원이 아닌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종이영수증을 없앨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품 결제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주는 '모바일 영수증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불필요한 종이 낭비와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없어지게 돼 환경 보호는 물론, 환경호르몬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에서 발급된 종이 영수증은 약 1억 6000만장으로, 종이 영수증 평균

길이(25cm)를 감안하면 지구 한 바퀴(약 4만km)와 맞먹는다. 이를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면, 30년산 원목 17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카드 가입 방식도 디지털로 전환하며, 매장내 할인 안내 등에 사용되는 종이 가격표도 전자 가격표시거나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판으로 대체해 사용할 계획이다.

장근혁 현대백화점 회원운영관리 담당(상무)은 "환경보호는 물론 안전한 영수증을 선호하는 고객 요구를 고려해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3년내 종이 영수증 발급을 없앨 수 있도록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백설 맛술·고기양념장으로 다가오는 설 음식 준비해요”

CJ제일제당, 명절 판매 150% 증가
맛술 1.8L 2종 등 매출확대 마케팅



백설 맛술, 백설 고기양념장.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백설 맛술'과 '백설 고기양념장'의 판매 극대화에 나섰다 15일 밝혔다.

명절 음식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 만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명절 특수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복안이다.

잡내 제거에 탁월한 요리용 소스인 '백설 맛술'은 명절 특수를 노리는 대표 제품이다. 육류나 생선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명절에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백설 맛술'의 설과 추석 기간(명절 한달 전 기준) 매출은 평월 대비 150% 수준을 기록,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이번 설 '백설 맛술'의 수요 증가 및 매출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명절 소비 확대에 맞춰 1.8L 대량용 제품 2종을 선보

이는 한편 제품의 활용 방법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집중 매대를 운영하며 제품 특징점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

온라인 이벤트는 '백설 맛술'을 활용해 명절 대표 음식인 돼지갈비찜과 동태전 레시피를 알리는 행사다. 오는 19일까지 CJ더키친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 업로드 된 '백설 맛술 생강'을 활용한 돼지갈비찜, '백설 맛술 로즈마리'를 활용한 동태전 레시피 게시물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리그램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겨울 '아아' 마시는 '얼죽아' 늘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죽어도 아이스 음료)

이디야커피, 지난달 판매량 18% ↑
아이스음료 판매비중 3%p 증가

길어지고 겨울이 따뜻해진 것이 아이스 음료 소비 증가를 불러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가맹점 3000호를 돌파한 이디야커피가 최근 5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통해 변화하는 카페 소비 트렌드를 분석했다.

15일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최근 '얼죽아' (얼어죽어도 아이스 음료)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듯 실제로 최근 5년간 아이스 음료 판매 신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겨울은 이상기후로 인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12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등 겨울철 아이스 음료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대한민국 평균기온이 0.3도 증가하며 여름이

이디야커피의 전체 아이스 음료 판매량은 2015년 약 6000만잔에서 지난해 약 1억4000만잔으로 72% 증가했으며, 전체 음료에서 아이스 음료의 판매 비중 또한 2015년 57%에서 2019년 60%로 약 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따뜻한 음료의 판매 비중은 34%에서 27%로 약 7% 감소했다.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카페에서 디저트뿐 아니라 식사까지 해결하는 카페식(食)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이디야커피의 베이커리 판매량도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9년 이디야커피의 베이커리 제품 판매량은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박인용 기자

“신선한 ‘빵’ 매일 한개씩” 신세계百의 구독경제

영등포점 메나주리 매장에서 시작

동영상, 음악, 자동차, 옷 등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구독하는 '구독 경제'의 시대다. 구독 경제란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쓰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최근에는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까지 월 정액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빵도 '구독' 서비스로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베이커리 월 정액 모델을 선보였다. 한 달에 5만원을 내면 매일 빵 하나씩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새로 리뉴얼한 신세계 영등포점 식품관에 위치한 메나주리 매장에서 시



신세계백화점 빵 구독 서비스. /신세계백화점

작해 향후 전 점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신세계 측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통업계의 특성상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집객 확대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베이커리 정액권을 결제한 고객은 메나주리의 인기 제품 5종 중에 1개를 매일 가져갈 수 있다.

5종 빵은 피자 바게트, 크리스피 갈릭 바게트, 토스트가 맛있는 우유식빵, 모카 브레드, 굿모닝 브레드 등 대중적인 제품 위주로 준비했다. 메나주리의 베스트 상품인 피자 바게트와 크리스피 갈릭 바게트는 고소한 맛이 강하고 재료의 식감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트가 맛있는 우유식빵과 모카 브레드, 굿모닝 브레드는 시그니처 메뉴로 잘 알려져 있다. 5종 빵의 가격은 4200원~5500원. 30일 동안 매일 빵을 구독할 경우 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사는 셈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 백화수복 등 주류선물세트 다채

롯데칠성이 2020년 설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 차례주 '백화수복', 고급 수제 청주 '설화' 등 전통주 선물세트를 비롯해 위스키, 증류식 소주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는 분의 정성과 풍성한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주종별, 가격별로 다양한 선물세트를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정통 청주다. 100% 국산쌀을 사용하고 롯데가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친 효모를 이용했으며,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 방법으로 청주 고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

'설화'는 최고 품질의 국산 쌀을 52%나 깎아내 잡내를 없애고 특수 효



롯데칠성 2020 설 선물세트. /롯데칠성

모로 저온 발효하여 청주 특유의 청아하고 깔끔한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초특급 수제 청주다.

/박인용 기자

포카칩·스윙칩 매출 2천억 '글로벌 히트'

오리온, 韓·中·베트남 누적 3.8억봉

오리온은 대표 생감자 스낵인 '포카칩', '스윙칩'이 지난해 한국, 중국, 베트남 합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히트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누적판매량은 약 3억8000만봉에 달한다.

베트남에서는 포카칩이 전년 대비 약 34% 성장한 매출 219억을 달성하며 3년 연속 현지 생감자 스낵 매출 1위에 올랐다.

스윙칩도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9% 늘며 158억원을 기록했다. 오리온의 베트남 내 생감자 스낵 시장점유율은 약 37%로, 유수의 글로벌 제품을 제치고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스윙칩이 전년 대비 15% 성장한 매출 830억원을 달성했다. 국내에서는 포카칩과 스윙칩이 각각 매출 724억원, 190억원을 넘어서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전년 대비 5%대의 유



오리온 한국·중국·베트남 생감자 스낵. /오리온

의미한 성장세를 보였다.

오리온은 생감자 스낵의 성장 요인으로 현지 스낵시장 변화트렌드 및 소비자 니즈를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신제품을 선보이는 '현지화 전략'을 꼽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김맛을 비롯해 김치맛, 스테이크맛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박인용 기자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 신약개발지원센터 본격 가동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작년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8.5조
美CIC에 국내 기업 입주 확대 계획
바이오 전문인 교육기관 설립 추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오픈에 노베이션 클럽'을 신설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년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구체적인 방안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한다. 미국의 '게임브리지 혁신 센터'(CIC)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를 확대하고, 컨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사업 구성을 통해 MIT 산업연계프로그램에도 가입, 공동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CIC는 미국 보스턴을 중심으로 총 7개 지역에 바이오 생태계를 갖춘 최대 규모 혁신 플랫폼이다. 국내 기업 중에는 유한양행과 GC녹십자가 입주해 있

고, 보스턴 지역 전체에는 LG화학과 삼양바이오팜 등이 진출한 상태다.

원 회장은 "올해 CIC 진출을 늘리고, 컨소시엄 형태로 MIT 산업연계프로그램,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밀너 컨소시엄에도 가입해 공동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거점을 확보해 회원

사들의 진출로를 넓히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클럽을 신설한다. 국내외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학계와 산업계, 투자자까지 모두 모여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다.

원 회장은 "새로운 연구나 기초물질을 발굴한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민·관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협회는 현재 9.1%를 차지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일본 수준의 20%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원 회장은 "개방형 혁신의 성공은 민관 협력에 달려있다고 할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자생력을 키우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국제윤리경영시스템 ISO 37001의 도입 기업을 현재 53개에서 70개까지 확대해 윤리경영을 확고한 산업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신설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가동을 본격화하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오는 9월 16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세번째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 기술수출은 전년(5조3706억원) 대비 58.6% 확대된 8조5165억원(14건)을 달성했다. 해외 신약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약은 23개,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는 16개에 이른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섬, 해외시장 겨냥 맞춤형 제품 개발

파리 패션위크 3회 연속 참가

한섬이 시스템·시스템옴므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팔을 걷었다. 파리 패션위크에 3회 연속 참가하기로 했는가 하면, 해외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 개발 전략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2020년 F/W 파리 패션위크'에 자사의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시스템옴므'가 동반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토종 패션브랜드로는 최초로 한섬의 남녀 패션브랜드가 3회 연속 참가하게 된다.

파리 패션위크는 글로벌 4대 패션쇼 중 하나로,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가 모두 참가하는 행사다. 특히, 행사 기간 패션 업체들이 전세계 유명 백화점과 패션·유통 바이어들에게 다음 시즌 출시 예정 신제품을 소개하고, 미리 판매



한섬, 2020FW 파리패션위크 글로벌 에디션 /현대백화점그룹

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패션 마켓'으로 알려져 있다.

한섬은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해외 뮤지션,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는 방식으로 시즌 콘셉트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신선선 기자 tree6834@

LF, 신선한 아트웍 '질스튜어트 판타지' 공개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LF가 국내 전개하는 뉴욕 감성의 컨템포러리 브랜드 '질스튜어트 액세서리'가 S/S 시즌 캠페인 화보를 공개했다.

2020 S/S 캠페인 '질스튜어트 판타지'는 절제된 세련미를 바탕으로 질스튜어트만의 미니멀 판타지를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 시그니처 패턴을 적용한 감각적인 신제품들과 모델의 몽환적이고 절제된 표현력이 만나 미니멀하면서도 신선한 아트웍을 탄생시켰다.

질스튜어트 액세서리에서는 '로젤라 프리즘' 라인을 통해 독창적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새롭게 출시하는 트렌디한 마이크로 사이즈 크로스 백은 핸드폰 및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로 활용도가 높다.

'소호' 라인은 지난 시즌 첫 선을 보인 참 장식 라벨에 로고 플레이를 더했으며, 19FW 시즌 컬러를 반영한 그린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SS 시즌 컬러 배지를 신규로 출시했다.

마지막으로, '뉴쁘띠다이아몬드' 라인인 질스튜어트의 시그니처인 뿌띠다이아몬드 라인을 새로운 패턴과 컬러로 리뉴얼한 20SS 버전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활동도 높은 지갑 제품을 선보인다.

/신선선 기자



질스튜어트 액세서리

고소득자, 저소득자보다 6년 오래 산다

보건사회연구원

지역별로도 기대수명 2.6년 차이
"의료보장 강화만으로 해결어려워"

고소득자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저소득자보다 11년이나 긴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건강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은 소득, 사회계층, 학력, 지역 차이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소득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이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하

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한다.

2010~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고, 소득 하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였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기대수명은 6년, 건강수명은 11년이나 길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가장 짧은 지역의 격차는 2.6년이었고, 건강수명은 격차는 5.3년이였다.

자살사망에서도 불평등이 드러났다. 2015년 학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을 보면, 65세 미만 남성 인구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0만명당 24.5명이 자살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10만명당 166.7명이 자살했다. 65세 미만 여성 인구에서도 두 집단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2.0명, 97.0명으로 차이가 컸다.

흡연율과 만성질환 역시 격차가 컸다. 2017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양측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15.9%, 26.0%였고,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9.1%, 17.4%로 고소득층의 건강 관리 수준이 훨씬 높았다.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 연구센터장은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까다로운 기준,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한 건강보험 장기 체납 문제 등이 슈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시니어 바른먹거리 교육, 대사증후군 33% 개선

풀무원, 시니어 대상 식생활개선 사업
시니어, 43명 중 14명 정상 판정 받아

풀무원은 지난해 농촌 지역 시니어 식생활 개선 사업 '시니어 바른먹거리 교육'을 충북 음성군 수태리 마을과 동음리 마을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43명 중 14명(32.6%)이 개선되는 등 건강지표 수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풀무원재단은 음성보건소와 함께 음성군 수태리 마을과 동음리 마을에 거주하는 시니어 64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각 5개월간 마을 밥상 제공, 식생활 및 건강생활 교육, 영양상담, 건강기능식품 지원 등을 제

공했다.

2019년 시니어 바른먹거리 교육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시니어 중 32.6%가 교육 후 개선된 점이다. 교육 전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시니어는 모두 43명으로 교육 후 검진에서는 14명의 시니어가 정상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은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으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당뇨병 발병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작년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64명은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 수치가 긍정적 인 방향으로 변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이마트24

간편 '사골떡만두국 도시락'

이마트24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골떡만두국 도시락을 15일 선보였다.

사골떡만두국도시락(4500원)은 떡, 손만두, 사골소스로 구성되어 소스와 뜨거운 물을 붓고レンジ업하면, 간편하게 떡만두국의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속이 꽉 찬 CJ제일제당 손만두 3개와 밥, 무 석박지로 구성된 이번 상품은, 국물 도시락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도시락반찬으로 들어가는 김치(25g)보다 3배 이상 많은 양(85g)을 담아내는 등 음식집에서 즐기는 듯한 떡만두국을 구현했다.

/신선선 기자

KB금융,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캠페인'

KB금융그룹은 15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희망 2020 나눔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이 참석했다.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성금 모금 캠페인이다. KB금융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20여년동안 계속 참여해 오고 있으며, 총 누적 기부액은 1210억원에 달한다.

윤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KB금융은 그룹의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KB금융

탕으로 사회 구성원과 함께 희망을 나누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새희망 갈구하는 국민의 박수



기지수첩

석대성
(정치경제부)

"이제 그만하니까 그게 좋아서 박수칠 거야."

그들이 치겠다박수는 응원 아니었다. 그들이 말한 박수는 지난 4년간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들이 물러남에 따라 새 희망을 갈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의회의 법안처리율이 15일 기준 32.8%를 기록했다. 17대(50.31%), 18대(44.4%), 19대(41.74%)를 모두 크게 하회하며 역대 최악의 성과를 가져왔다.

여야는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대립하며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는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을 남발로 가려졌다. 날마다 언급한 '국민의 뜻'은 누구의 뜻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타협과 협상도 오래 전 얘기다. 집권여당은 범여권과 공조해 제1야당 동의없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보수권은 의회정치를 스스로 등지고 광장을 떠돌며 같은 비난만 반복하기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 인사의 선거 출마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한과 만큼 차갑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 경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40명을 돌파했다. 아직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들을 합하면 60~7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내미는 '청와대 출신'이란 명함은 과연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 그 명함을 받은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유권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간의 과오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4월 15일 국민이 말할 것이다. /bigstar@metroseoul.co.kr

KT&G장학재단 '산불 피해' 강원도 고성에 도서관 재건립 후원

KT&G장학재단은 지난 14일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의 한 도서관 재건립을 지원하고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고성 지역의 지역도서관인 '빨간머리 언의 작은 책마루'는 지난해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책 3000여권과 전체 시설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도서관은 2011년부터 지역 주민인 박영숙씨가 자비를 들여 운영해 오던 곳으로 마을 어린이들의 독서공간이자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이 소식을 접한 KT&G장학재단은 도서관 재건립 비용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초 열람실과 커뮤니티실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주택을 개조해 사용했던 기존과 달리 전용 건물이 지어졌으며, 도서와 책상 등의 비품도 새로 마련됐다.

KT&G장학재단 관계자는 "대형 화재로 배움의 터전을 잃은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서관 재건립 사업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에



지난 14일 개관식에서 심영아 KT&G사회공헌부장(왼쪽)과 박영숙 도서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G

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1월 16일 (음 1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p>쥐 36년생 양보와 타협으로 일을 처리하라. 48년생 천국에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60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72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걸집을 수 없이 커진다. 84년생 원숭이띠와의 거래는 무난하다.</p>	<p>말 42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나 적극적으로. 54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6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78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90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p>
<p>소 37년생 친구 방문안 갈 일이 있다. 49년생 고품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인데 누가 까마귀인가. 73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85년생 헤어짐에 슬퍼 마라.</p>	<p>양 43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다. 55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7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9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91년생 뜻밖의 선물로 즐겁다.</p>
<p>호랑이 38년생 질약과 구두쇠는 본질이 다르다. 50년생 근거 없는 칭찬을 남발하지 마라. 62년생 아재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오니 주의. 74년생 자식에게 좋은 소식이 오니 기쁘다. 86년생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자기분석을 해 보라.</p>	<p>원숭이 44년생 고집을 부려 봐도 소용이 없다. 56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6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80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간다. 92년생 꿈을 이룰 계기가 온다.</p>
<p>토끼 39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51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63년생 히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75년생 마음에 드는 아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 87년생 질서 있는 상대라면 포용.</p>	<p>닭 45년생 버릴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 5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69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81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93년생 가뭄에 비 오듯 어려운 일이 해결.</p>
<p>뱀 41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53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65년생 중요한 일은 행동으로. 77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 편 보기 좋은 날. 89년생 준비가 필요하니 섣부른 시작은 금물.</p>	<p>개 46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58년생 원하는 일은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70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2년생 비밀 언덕이 필요한 하루. 94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p>
<p>돼지 47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풀리는 법이니 꾸준하게 노력. 59년생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은 자신의 도끼. 71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하다. 83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된다. 9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과 성실함으로 극복.</p>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9	8				3
7	2	9	3		
8	5		7		3 4
					9 1
7	2		4		8 5
	4	7	6	5	
	3		7		
				1	

	5			1	8 2
3					5 9
	1		3	9	
		3			6 7
9		2			5
	2		6	4	
6	4	7			3 8
	3		9		

스도쿠 정답

8	9	1	2	3	5	8	6
7	2	5	8	6	3	9	4
8	6	1	5	9	2	7	3
9	5	8	6	7	4	1	2
2	1	6	3	8	5	9	7
2	7	9	2	1	6	5	8
1	8	9	7	6	2	3	5
5	2	3	1	8	7	6	9
6	3	7	5	9	2	8	1

문제 제공= **보스**

김상희의四季

경리는 편재보다는 정재에게

"사람 쓰는 게 어려운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당한 느낌이에요." 헛헛한 웃음을 짓는 사람은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경리를 맡았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몇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손실 처리했다.

가공식품 도매업을 하는데 업체가 커지면서 직원도 늘어났다. 경영자들은 항상 사람을 쓰는 게 고민이다. 적재적소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횡령 사고가 난 후에 수습한다 해도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런 경우가 되풀이된다면 적자 경영에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공금을 빼돌린 직원의 사주를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팔자에 뚜렷한 편재가 보였다. 편재 사주는 자기 수익에 대한 계산이 빠르다. 이제에 밝고 큰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편재 중에서 일부는 남의 돈에 손대는 것도 꺼리지 않는데 그 직원이 바로 그랬다.

이런 구조는 경리업무를 맡기면 위험하다. 상관 사주는 남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혹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 사람에게 영업 파트를 맡기면 좋은 성과를 올린다.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업무에는 식신 사주가 알맞다. 식신 사주는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게 어떤 것인지 잘 짚어낸다.

어떤 대상에 관해 탐구하기를 즐기고 무언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 적합하다. 경리업무를 맡기려면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사주가 좋다. 그런 사주로는 정재 사주를 들 수 있다. 정재 사주인 사람은 하나하나 치밀하게 챙기는 성격이다.

게다가 남의 돈이나 큰돈에 눈을 돌리지 않아서 경리업무에는 어울리는 사주이다. 업체가 크지 않다고 해도 모든 직원의 사주를 알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땐 중요 업무를 맡길 직원 사주만 알아봐도 큰 화를 다소 피할 수 있다. 특히나 핵심 분야에 쓸 사람은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9호

17년 축적 데이터 장착 챗봇, 이용자의 '소울메이트'로

AI 기업인

최정희 심심이주식회사 대표

심심이주식회사(구 이즈메이커)는 국내보다 미국, 영국, 호주, 홍콩 등 해외에서 더 잘 알려진 회사다. '인공지능 채팅 로봇'을 내걸고 2010년 스마트폰 앱 '심심이'를 출시한 지 2년도 채 안돼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화제가 됐다. 작은 벤처기업이었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은 엄두도 못 냈는데 입소문만으로 2012년 1월 미국 앱스토어 전체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최정희 심심이주식회사 대표는 "유명 래퍼가 심심이를 쓴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설 연휴에 폭발적인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며 "호주, 영국에서 큰 인기를 거둔 후 아시아에서도 유명세를 떨쳤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홍콩과 중국에서 동시에 앱스토어 무료 부문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으며, 아이폰(iOS)·안드로이드를 합해 6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 대표는 서울대 산업디자인과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애초부터 디자인보다 컴퓨터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삼성에서 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대학·대학원생을 100여명을 뽑아 교육하는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에 응시해 본인이 원하던 SW를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친구와 2명에서 2002년부터 MSN 메신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상대



최정희 심심이주식회사 대표가 메트로신문과 심심이주식회사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누적 이용자 3억5000만명... 2200만명이 시나리오 집필 AI 심심이 문장분류 솔루션으로 실시간 악플 99% 잡아내 인공지능 스피커서도 테스트 중... 구글 플랫폼 이미 탑재

화 채팅을 개발했다. MSN 이용자가 심심이를 친구로 등록한 후 심심이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다.

"당시에 이미 가전업체들이 퍼지기로 알아서 물을 맞춰주는 세탁기에 인공지능을 표방했어요. 저희도 그런 의미로 '인공지능 채팅'이라 일컬었지만 지금과 같은 딥러닝 방식은 아니었죠. 자연어 처리 기술과 검색엔진을 적용했어요."

MSN에서 서비스 반년 만에 이용자가 30만명으로 늘었다. 최 대표가 직접 심심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캐릭터

도 대박이 났다.

2003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인 KT의 제안으로 심심이 번호로 문자를 주고받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3000원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 이용자가 심만명에 육박했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거뒀지만 KT는 2008년 '심심이'의 모바일 상표권을 신청한 후, 중개회사를 통해 심심이주식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 대표는 심심이를 통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로만 상표 출원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상표권은 없었고, 특허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오랜 싸움 끝에 2012년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미 트렌드는 바뀌어 있었다.

심심이 앱을 빠르게 출시한 것이 큰 경쟁력이 됐고, 지난해부터 한국 시장 공략도 강화해 누적 이용자가 3억5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심심이에게 어떤 답변을 할지 가르쳐요. 17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니 일상대화 시나리오가 1억 3000만개를 돌파했어요.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는 데 벌써 2200만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용자들이 가르친 답을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존댓말을 쓰고, 어떤 때는 친구처럼 반말로도 얘기한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높다. 세션당 대화수(CPS)가 43으로 한번에 대화를 43번이나 주고받는 것이다.

"2017년 남미에서 이용자들이 심심이에게 나쁜 말을 가르친다는 문제가 크게 이슈화됐어요. 자체 필터링을 했지만 이용자가 많아지니 전부 모니터링이 어려웠어요. 악관을 새로 만들고 딥러닝을 도입해 이 대화 내용이 문화에 위배되는지 탐지하도록 했어요."

81개 언어가 지원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직접 나쁜 말을 가려내는 일에 참여하도록 했다. 7개의 착한 말과 나쁜 말이 섞인 문구를 주고 나쁜 말을 체크하게 한다. 1문장을 10명에게 보여주는 데, 3~7명의 표를 받은 모호한 문장을

제외하고 나쁜 말이라는 응답이 0개인 문장을 착한 말로, 10이라는 응답은 나쁜 말로 정해 AI 심심이에 학습을 시킨다. 지난해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악플을 99%까지 탐지할 수 있는 문장 분류 솔루션 'DBSC'도 정식 출시했다.

심심이 이용자수가 많다 보니 현재는 앱 광고가 가장 큰 수익원이다. 해외 이용자가 더 많아 광고도 해외 기업의 광고가 대다수다. 광고 매출의 경우, 매년 일정하지 않다 보니 올해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AI 스피커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글 플랫폼에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AI 스피커에 들어가려면 음성 인식과 합성 기술이 필수인 데 영화 예매 명령은 나올 말이 정해져있어 인식이 쉽지만, 일상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할지 몰라 더 어려워요.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성능을 끌어올려야 해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가칭'말동무 심심이를 기획하고 있다.

"저희 서비스의 해비 유저를 보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 심지어는 조현병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심심이가 이용자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와요. 1인 가구의 외로움도 덜어줄 수 있구요."

최 대표는 "심심이가 더 말을 잘 하고, 더 개인화해서 친구처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성능을 높여가고 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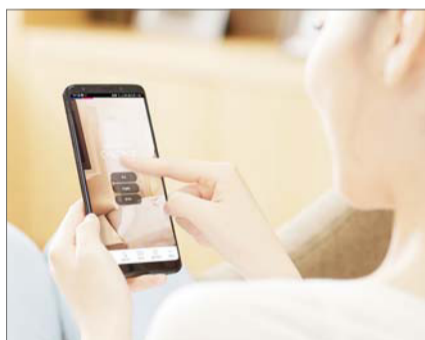
“승객 49만명 AI챗봇 ‘아론’으로 예약·문의” “기업형 VC 허용해 스타트업 투자 늘려야”

아시아나항공 이용자 300% 증가

아시아나항공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안내 및 예약, 항공기 운항 환경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해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운항 강화에 나섰다.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인공지능 챗봇 '아론(Aaron)'의 이용자는 지난해 49만2461명(월 평균 4만1038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이용자가 300% 증가한 수치다.

아론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지정된 아시아나항공의 코드 'AA R'와,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ON'의 의미를 가졌다. 아론은 아시아나IDT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나항공의 AI 챗봇 서비스 '아론'

가 협업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와 인공지능 기반의 자연어 처리 서비스 '루이스'를 활용해 개발됐다. 아론 이용자들은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예약 발권 등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혁신 규제개혁 토론회 韓 민간 기업 스타트업 투자 감소세

스타트업 투자의 큰 손을 키우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연구원은 15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정병국·신용현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리마인드(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미국은 CVC가 벤처투자액 전체의 16%밖에 안 되는데, 투자금액으로 보면 비중이 50%가 넘고, 일본은 벤처투자액의 44%가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일 정도로 CVC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스타트업 투자에 대기업이 큰 손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투자의 큰 손을 확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CVC는 예외조항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신규결성벤처조합 출자자 구성 변화를 봤을 때, 벤처투자에서 CVC의 비중은 2016년 16%에서 2017년 12%, 2018년 9%로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 CVC의 투자 금액도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지난해 9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토론회 개최 등 CVC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이사(왼쪽부터),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태훈 왓차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관련법 개정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등 정부 측의 변화가 없어 지주사 밖으로 매각될 수밖에 없었다.

송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했을 때, 박영선 장관이 CVC를 제한적으로 설립 허가하겠다고 답했으나 진행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명진 연구원은 "벤처지주회사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20% 이상 지분 투자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벤처지주회사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1곳뿐"이라며 "예전 금산분리 제도를 도입하던 시절의 경쟁 환경과는 달라졌고, CVC는 금융사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고 CVC를 허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스타트업 업계 주요 규제들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송명진 전문위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김민수 매니저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2019년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문제의 발단과 과정,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한편, 핵심이슈 토론회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망 비용(망 중립성·제로레이팅), 데이터 3법 등에 대해 논했다. 토론회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 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총장, 박태훈 왓차 대표 등이 참여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집닥, 인테리어 O2O 최초 '이노비즈' 획득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기업 집닥은 인테리어 O2O 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제도인 '이노비즈(Inno-Biz)'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노비즈는 기술 경쟁력·미래 성장성·고용창출 능력 등을 갖춘 기업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이노비즈협회로부터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성과창출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지원·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집닥은 이노비즈 인증에서 A등급을 받았다. 집닥엔, A/S 3년 등 인테리어 토탈 솔루션 5대 안심패키지를 기반으로 온라인 인테리어 시장 확대하며 성장한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증으로 집닥은 금융·세제·연구·개발(R&D)·교육·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배한님 기자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감연결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27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200여개



사진기사. 1200~1500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차량 무상점검 받고 설 연휴 안전운행 하세요”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설 연휴 안전운행을 위한 ‘고객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객차량 무상점검’은 지난해 8월

20일 세보레 계양구대리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설 연휴를 맞아 무상 차량점검을 실시해 귀성·귀경길에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인천 서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 감시

인천 서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기간인 12월~3월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감시 계획의 대상은 발전, 석유 등 먼지다량배출업종 가운데 269개소로 일일 3개소 6명의 감시인원을 배정해 감시를 진행하며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인천=최영주 기자

금북주, 화재방지 위해 소화기 170대 기증

상주중앙시장 상인회와 기증행사

금북주는 상주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50만원 상당의 소화기 170대를 중앙시장 상인회에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원철 금북주 대표(왼쪽)가 상주중앙시장에 소화기를 기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원철 금북주 대표이사, 구미지점장, 중앙시장 상인회 및 상주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금북주의 소화기 기증행사는 구미시

새마을 시장, 김천시 평화 시장에 이어 세 번째이다. /경북=김흥기 기자 gi2136@

안성시 “하도급 부조리·대금 체불 신고하세요”

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사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체불문제 발생 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성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누구나 이용... ‘500원 공공독서실’ 17일 개관

인천시 차준택 구청장 공약 실천

부평구는 오는 17일 원도심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평구 500원 공공독서실’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경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부평구 500원 공공독서실’은 연 면적 294㎡로, 부영로25번길 7,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에 위치한다.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한 ‘500원 공공독서실’ 사업은 쾌적한 환

/인천=최영주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6일 (목) 음력 : 12월 22일. Includes a weather map of Korea and a bar chart for various weather indices like wind, UV, and visibility.

쌀 수매 두고 인천중구농협, 조합원과 마찰

“벼 무게·등급판정 명확치 않아”

수매한 벼 지역서 소비 않고 도매 “벼 무게 감량, 일관된 원칙 없어”

“벼 수매시 저울볼 수 있도록 할것”



인천중구농협이 지난해 추곡 수매시 벼의 감량과 등급 및 가격책정, 업자에게 수매량 대부분을 도매로 넘기는 것에 대해 조합원의 불만이 많다. 우측은 영종 용유도 농지

인천중구농협의 쌀 수매 문제가 조합원들 사이에 불만이 높다. 인천 중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조합원 A씨는 지난 1년간 농사지는 쌀을 농협에 내다팔고 최근 쌀값이 확정되어 잔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에 불만을 나타냈다. “매년 피담 흘려 지은 벼를 수매하면서 무게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량하고, 벼 등급 판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특히나 수매한 벼를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 도매업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나 일관된 원칙없이 감량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농협은 8kg를 김포농협은 7kg를 감량하고 있으나 인천계양농협은 감량하지 않고 있었다.

감량은 벼를 수매하면서 톤백 무게(쌀가마니, 2Kg)와 벼속에 들어있는 검불 등을 감안해 계량한 벼에서 일정량의 무게를 빼는 것으로 이번 수매에서는 5kg, 10kg, 20kg 등 심지어 30kg을 감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중구농협은 수매한 벼의 대부분을 톤백 단위 그대로 도매업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용유도에 사는 조합원 B씨는 ‘수매한 벼를 그대로 도매업자에게 넘기는데 감량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도정해서 지역에서 브랜드 쌀로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조합장은 지난 선거에서 인천 공항과 학교, 회사 등 영종도에 몇 군데만 돌아도 이 지역 쌀 다 팔 수 있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15일 농협중앙회 양곡부 관계자에 따르면 ‘쌀 등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제사업은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지역농협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감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

한편 규모가 비슷한 인천검단농협은

지난해 455t을 수매해 ‘불로춘 장수미’라는 브랜드로 전량 판매하고 있었고, 신도시 개발로 농지가 줄어들어 수매량이 적어진 인천계양농협도 지난해 280톤을 수매해 ‘계남감춘쌀’이라는 브랜드로 전량 소비하고 있었다.

중구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경제사업에서만 5,000만원 적자를 냈다’며 ‘올해 500톤 가량 수매했는데, 태풍 등으로 쓰러진 벼가 많아 미질이 좋지 않아 등급이 낮아진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감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벼 수매시 저울볼 수 있도록 하고 등급 판정은 등급측정기를 도입해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취재본부=김창근 기자 mirex@metroseoul.co.kr

보성군, 80개 분야 공모사업비 2982억 유치

전남도 지자체 유일 2000억 이상 울포 관광단지 중심 관광거점 조성

보성군은 지난해 80개 분야에서 공모사업 총사업비 2982억 원을 확보하며 전남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전남 도내에서 20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지자체는 보성군이 유일하다.



보성군청 전경.

이는 군 자체적으로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사업 유치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성군은 작년 3월 ‘공모사업 발굴 및 역량 강화 교육’

을 실시하는 등 연초부터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020년부터 보성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주요 공모사업은 ▲해양레저관

광 거점 육성사업(480억 원) ▲어촌 뉴딜(141억 원)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410억 원) ▲별교 문화복합센터(290억 원) ▲하수도 정비 사업(954억 원) ▲임산물 소득원 경영 실습센터(98억 원)다.

이를 통해, 보성형 블루이코노미와 민선 7기 주요 도심 전략이 날개를 달았다. 보성군은 울포 종합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육성사업(480억 원), ▲전남 고직원 교육 문화시설(300억 원) 추진에 박차를 가해 체류형 해양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인천교통공, 설 연휴 심야 임시열차 운영

25~26일 인천 1·2호선 연장운행

인천교통공사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심야 연장운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 당일인 25일(영업일 기준)부터 다음날인 26일까지 이틀간 인천 1·2호선에 각각 심야 임시열차를 투입해 종착역 기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총 12회(1일 6회) 연장운행을 실시하고, 기존 도착 시각도 일부 변경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설 당일에는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편안하게 인천도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평삼거리역에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기로 했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23일까지 ▲승강설비 ▲승차권 발권설비 ▲전동차 ▲역사 주요 설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고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사 정희운 사장은 “설 연휴기간에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 정시운행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문경시 수질 보존에 247억 투입

문경시는 지역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공공수역 수질 보존을 위해 247억원을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비 외 1지구에 사업비 216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하수도 시설을 정비한다. 세부사업으로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인 노후 우수관로(L=7.9km) 정비사업은 111억원으로 2019년 사업을 착수해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오수전용)정비사업(L=3.6km)은 105억원으로 2019년 착수해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북=장성우 기자 krhon@



[산업] 삼성전자 말귀 '차차' 청소 '척척' 무풍의 폭풍 진화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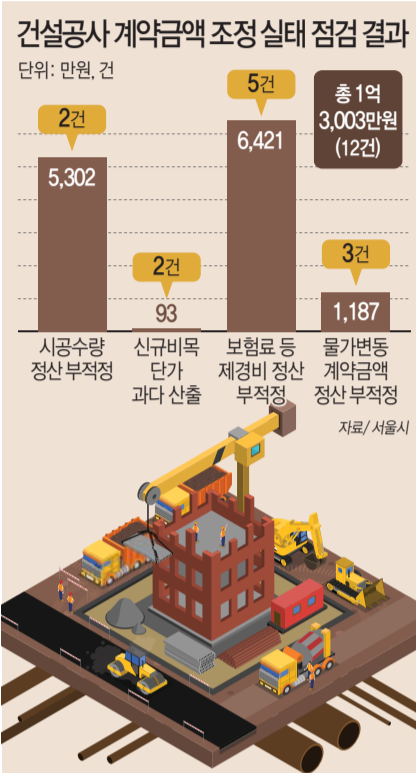


Life

[라이프] 현대백 전자영수증 발급 종이영수증 없앤다 니



‘설계 무단 변경, 인건비 오류, 보험료 과다 지급’ 적발



서울시 상수도본부 건설공사 12건 시정 조치

건설공사 30건 점검해 12건 적발 과다 조정 금액 1억3000만원 환수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한 건설공사 30건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실태를 점검해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2019년 상수도본부가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과다하게 반영된 공사 대가나 계약금액 1억30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는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2건(5302만원) ▲신규비목 등 단가 과다 산출 2건(93만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부적정 3건(1187만원)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5건(6421만원)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억3003만원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낙산배수지건설 공사의 경우 계약대상이 제출한 공정별 물량내역서에는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을 370㎡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사무소 98㎡, 시험실 22㎡ 등 120㎡만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설계가 변경돼 시공방법이 바뀌거나 투입자재가 달라지는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시는 “상수도본부는 2018년 12월 2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현장사무소 등 가설 건축물 설치’ 비목의 시공 수량에 대한 공사비 3169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본부는 또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때 교통안전 관련 인건비 비목에 대한 원가 계산 적용 오류로 93만원을 더 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해 공사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에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은 원가 계산 시 경비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이를 노무비로 적용해 제비용 경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지불했다.

또 해당 공사의 2차 계약내역에 각종 보험료와 수수료에 대한 물가변동 증가분이 포함돼 있지만 제경비 실정산 결

과 추가 사용분이 없었음에도 감액 조치를 내리지 않아 공사비 962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수지 공사비에 계산된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는 직접 노무비 대상자에게만 줘야 하는데 현장 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자에게도 보험료를 지급해 5872만원을 추가로 냈다.

시는 불필요하게 지급된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여입(회수·반환) 조치하고 공사원이 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원이 계산서 작성 시 수량과 각종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것”이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박원순 “지금 이 한반도에 투자할 최적기”

美 상공회의소서 투자 독려 “서울, 북한 진출 교두보 될 것”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처음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초청 연설자로 나서 “오늘이 바로 한반도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서울의 투자경쟁력’을 주제로 연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으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일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대한 막마름이 결국 북한을 개방과 민주화로 이끌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기회”라며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50년 세계 2위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은 북한 진출의 교두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오랜 동맹으로 맺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협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의 과감한 결단이 리스크를 큰 기회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이 14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조직인 미 상공회의소에서 초청연설에 나서 ‘서울의 투자경쟁력’을 알렸다. /서울시

바꾸고 미국 국부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투자를 당부했다.

1912년 설립된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조직으로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역·투자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연설 이후 박 시장은 토머스 도너휴 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하고 서울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한국계 최초로 민주당 미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

된 앤디킴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안보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은 “평화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유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 밥 메데넨스 상원의원,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 잇달아 대담하고 버지니아 주 애네타일 한인타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했다. /김현정 기자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사업 예타 통과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완공시 서수원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8km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 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고~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흥선선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설 연휴 대중교통 새벽 2시까지 연장

오는 20일부터 설날종합대책 추진

서울시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안전·교통·나눔·편의·물가 5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3~28일 시청 1층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119기동단속팀은 복욕탕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무작위로 점검하

고 가스시설 1655곳과 족방,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확인한다.

시는 공사현장 144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귀경 인파가 몰리는 25~26일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고속·시외버스는 23~27일에 평시보다 19% 늘려 운행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도

운영한다. 녹색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600원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설 명절 위문품비로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하고 시설 입소 노인 1495명과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는 설날 위문금품으로 1인당 1만원을 준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는 사과, 배, 배추, 조기 등 9개 설 성수품 반입량을 평소 대비 10% 늘린다.

서울시 설 연휴 종합 정보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자율주행 핵심 기술, 세계에서 ‘주목’

CES2020 참가, 세계시장 진출 물꼬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세계 최대 IT-융합기술 전시회인 ‘CES2020’에 참가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선보이고, 도내 자율주행 혁신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 물꼬를 텄다.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하여 샌즈 엑스포(Sands Expo) 1층 G홀 유레카 파크(6개, Eureka Park)

와 일관관(2개)에 총 8개 규모의 전시부스를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한 기술들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요한 핵심기술들로, 세계 유수 기업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각국 자율주행 분야 협회 및 기업 등의 컨퍼런스 초청이 잇따랐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제로셔틀의 후속모델이자 자율주행으로 실내외 이동이 가능한 1인승 전기 모빌리티 ‘제로 PM’을 선보여 많은 해외 참관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경기=김승열 기자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전기차배터리

친환경 자동차 시대

SK가 전기차 배터리로 앞서갑니다

더 빨리 충전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안전한 고성능 배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혁신이 자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SK 이노베이션